

KLPGA

members

2015 VOL.30 8월호



COVER STORY

2015 시즌 첫
메이저대회 우승자
박성현 인터뷰

SPECIAL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 즐기는 라운드
프로암(Pro-Am)대회의
모든 것

KLPGA MODEL

제7대
KLPGA 홍보모델 사진

RISING STAR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은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박지연 인터뷰

COLUMN

명예기자 칼럼
태그인터뷰

KLPGA 드림투어 4차전 우승,
이은정 선수

히어로스토리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오순 프로 인터뷰



AROUND C.C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LEEDONGSOO SPORT



쉬운 샷 하나에도 빈틈을 보인다면
그건 여지없이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골프는 완벽을 가르친다

골프를 존경하라
이동수 스포츠



파란을 일으키다

* 어떤 탄산수 했나??



LEMON

PLAIN

LIME



ORIGIN OF SPARKLING WATER

초정탄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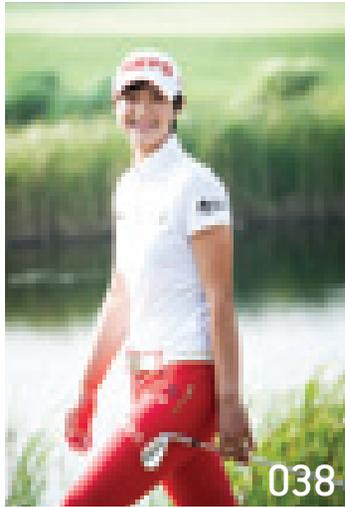
- 물 불기위 소염산 소성제 • 세계 최대 광천수
- 2019년-2021년 한국수업연회 동대
- 세종대왕이 사랑한 물 • 대한민국 최초 탄산수

Contents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5년 8월호



034



038



042



050

Section 01. KLPGA & Tour

004 / member's service

멤버스 서비스
회원 혜택과 회원 동정

010 / SCHEDULE

투어스케줄
2015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시니어투어 스케줄

014 / TOUR PREVIEW

투어프리뷰
미리 둘러보는 8월 KLPGA투어

016 / KLPGA NEWS

KLPGA 뉴스
KLPGA 주요 뉴스 및 공지사항

017 / TOUR NEWS

투어뉴스
KLPGA투어 소식

022 / BEST PHOTO

베스트 포토
박준석 공식사진기자가
뽑은 KLPGA투어 베스트 명장면

025 / KLPGA MODEL

제7대 KLPGA 홍보모델 사진

034 / AROUND C.C

어라운드 C.C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Section 02. People & Story

038 / COVER STORY

커버스토리
나에게 골프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휴식]이다
2015 시즌 첫 메이저대회 우승자, 박성현 인터뷰

042 / RISING STAR

라이징스타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은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드림투어 7차전 우승자 박지연 인터뷰

044 / SPECIAL

스페셜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 즐기는 라운드
프로암(Pro-Am)대회의 모든 것

048 / SPONSOR

스폰서
이수그룹

050 / HERO IN HISTORY

히어로인 히스토리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오순 프로 인터뷰

Section 03. Life & Communication

054 / FIT TRAINING

핏 트레이닝
골퍼를 위한 골프 피트니스

056 / MONEY TREND

머니트렌드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 투자법 I

058 / member's TALK

멤버스톡
나의 일상 나의 관심사, 소통의 도구 SNS
정현우 프로

060 / COLUMN

명예기자 칼럼
태그인터뷰 KLPGA 드림투어 4차전 우승,
이은정 선수

062 / LIFE INFO

생생골프정보통
여름철, 피부 속은 목마르다
수분 가득한 피부만들기

063 / FAN LETTER

그녀에게 전해주오
사랑하는 선수에게 보내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

064 / PAGODA STAR

파고다스타의 생활회화
음식포장

064 / QUIZ & QUIZ

틀린그림찾기

발행일 : 2015년 7월 25일 VOL.30호 발행인 : 강춘자 발행처 :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대치동) 송석빌딩 8층
TEL : 02-587-2929 FAX : 02-539-6003 www.klpga.com
기획 · 디자인 : (주)디자인페이지(02-324-9422)

SCHEDULE

주요 일정 및 행사안내
2015/08

AUGUST 2015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9차전 (신안) →				←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오라) →		
10	11	12	13	14	15	16
←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9차전 (센추리21) →		← KLPGA 2015 Ka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1차전 (센추리21) →				
		←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신안) →				
17	18	19	20	21	22	23
← KLPGA 2015 Ka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2차전 (센추리21) →		← KLPGA 2015 Ka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3차전 (센추리21) →				
		←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1차전 (신안) →		← BOGNER-MBN 여자오픈 (더스타휴) →		
24	25	26	27	28	29	30
←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10차전 (센추리21) →		← KLPGA 2015 Ka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4차전 (센추리21) →				
		←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 (신안) →		←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하이원) →		
31	1	2	3	4	5	6
← KLPGA 2015 Ka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5차전 (센추리21) →		← KLPGA 2015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군산) →				

골든베이

혜택

그린피 및 객실료 할인(주중에 한함)
 그린피(할인요금) | 그린피 팀당 36만 원
 객실료 | 투스칸빌리지 42평형(4인실기준) 15만 원
 조건 | 1팀 4인구성(KLPGA회원 1명 반드시 포함)



기간 | 2014년 11월 ~

연락처 | 골든베이 예약실(041-671-8000,8100)

주소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산포로 217 골든베이 골프 & 리조트

www.goldenbay.kr

'한화금융클래식 2015'가 열리는 골든베이 골프&리조트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상금으로 최고의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골든베이에서는 KLPGA 프로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면이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리아스식 해안의 절경은 귀하에게 최고의 라운드를 선사할 것입니다. 골프 여제 애니카 소렌스탐이 설계한 27홀의 코스에서 최고의 샷과 뜻 깊은 경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프

골든베이

기간 | 2014년 11월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그린피 할인(팀 당 36만 원 / 4인 1팀 기준),

자세한 사항 담당자에게 문의

연락처 | 041-671-8000, 8100 (예약실) 홈페이지 | www.goldenbay.kr

골프사랑

기간 | 2012년 4월 1일 ~

혜택 | 골프사랑 전 여행상품(홈페이지 참조) 작원가 적용,

국내전세버스 정상요금의 10~15% 할인

담당자 | 김중석 과장

연락처 | 031-284-7777 국내 전세버스는 가족회사(주)삼일관광여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골프존아카데미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정상 판매가격에서 50% 할인(삼성 / 목동지점 제외) 이용가능 지점

서울 : 공덕점, 발산역점, 중계점, 신반포점, 강남점

경기 : 서판교점, 행신점, 분당오리점, 정자점, 용인보정점, 김포사우점,

일산마두점, 남양주호평점

조건 | 1일 1회(60분) 이용 / 등록 지점에 한함

담당자 | 엄동환 대리 연락처 | 070-8640-6431

대영힐스 CC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 그린피 69,000원

프로요금 신설 이벤트(7/15~8/15) : 그린피 50,000원

(단, 주말/공휴일은 그린피 할인 없음)

담당자 | 서병일 대리

연락처 | 043-850-8601~3

그린피 할인을 위한 '대영힐스 CC 프로등록 신청서'를 제출

레이크힐스 용인 CC

기간 | 2012년 7월 15일 ~

혜택 | 정회원 내장 시 1인 정회원 대우,

그린피 : 정회원 23,000원, 주중회원 100,000원/

연습장 이용 시 KLPGA 정회원, 준회원 50%

담당자 | 영업운영팀 최남미 연락처 | 1588-8186

롯데 스카이힐

기간 | 2015년 5월 ~

혜택 | KLPGA 정회원 및 준회원 내장 시 주중 50% 할인, 주말 30% 할인

(김해CC 이용 시 개별소비세 별도)

연락처 | 제주(064-731-2020~2024), 김해(055-340-9001~4),

성주(054-930-9001~3)

〈member's service〉가 이번 8월호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매달 분야별로 세 개 업체의 회원혜택을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 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앤리 CC

기간 | 2013년 5월 20일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부 4인 1팀 기준 그린피 50% 할인,
당사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예약만 가능(전화예약 시 혜택 불가)
담당자 | 김만기 대리 (영업담당) 연락처 | 031-580-9021

무주안성 CC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KLPGA 정회원 : 그린피 50%(주중, 주말),
정회원간 2인 플레이 가중(주중, 주말), 숙소 무료제공(단, 사전요청 시 정회원에 한함)
KLPGA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주중, 주말)
담당자 | 유원식 실장 연락처 | 063-320-3202

보성 CC

기간 | 2015년 4월 ~ 2018년 3월

혜택 | 그린피 회원 2명까지 면제, 호텔다향 50% 할인, 레스토랑 20% 할인, 미술관 무료 관람
연락처 | 061-804-1000 (대표전화)

서원힐스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 (주중 : 3만 원 / 주말 : 2만 원 할인)
골프연습장 입점 골프아카데미 혜택
: 국가대표, 상비군선수 연습 라운드, 숭게임, 타석 무료 제공
우수선수 연습비용(라운드, 타석) 할인 혜택 제공
연락처 | 031-941-0025 (예약실) 홈페이지 | www.seowongolf.co.kr

세라지오 CC

기간 | 2013년 8월 12일 ~

혜택 | 1)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 25,000원 / 주말 : 105,000원
2) 당사 회원과 동반 내장 시 주중 : 105,000원 / 주말 : 150,000원
주말 예약은 2부에만 가능, 주말 해당일 12일 전 이후 예약 가능
연락처 | 031-887-8780 (예약실)

스카이72 GC

기간 | 2005년 ~

혜택 | 1) 그린피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및 티칭회원 중
스카이72 GC 인터넷 회원일 경우 예약/ 내장 시 10% 할인
주중 바다코스(오션, 레이크, 클래식)
2) 드림골프 레인지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자동타석 30%(주중), 20%(주말) 할인
담당자 | 스카이72 GC 김형준 매니저 연락처 | 1644-7222

스프링베일 GC

기간 | 2012년 ~

혜택 | 주중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면제(동반자 2명일 경우 50% 할인)
주말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50% 할인(동반자 2명일 경우 혜택 없음)
1팀 내 회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혜택
연락처 | 033-254-7900

신안골프 트레이닝센터

기간 | 2014년 7월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타석, 파3, 벙커 / 숭게임, 사우나 이용료 할인
연락처 | 031-673-8853 홈페이지 | www.shinanc.co.kr

오너스골프클럽

기간 | 2014년 3월 ~

혜택 | 주중 정상 그린피의 50% 적용 (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33-260-1918, 1919

옥스필드 CC

기간 | 2012년 4월 ~

혜택 | KLPGA 정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 1팀) 내장 시
회원 1명 골프장 정회원 대우(그린피 23,000원)
담당자 | 예약실 박성민 연락처 | 033-340-7700

우리들리조트 제주

기간 | 2012년 10월 ~

혜택 | 동반자 2~3인 내장 시
정회원 :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50% 할인
준회원 : 주중 그린피 50%, 주말 20% 할인
담당자 | 강유진 프로 연락처 | 064-766-7802 / 010-9162-0207

인터불고경산

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9월

혜택 | 해당일 5일 전부터 잔여 타임에 한해 시행,
해당일 5일 이전 예약 요청 시 팀 당 50% 1명 할인, 팀 당 2명까지 50% 할인대우
연락처 | 1544-4222 (예약실) 홈페이지 | www.interburgoc.com

중원골프클럽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그린피 면제(4인 1팀 18홀 기준 / 27홀, 36홀 해당 없음)
연락처 | 043-849-7920~7922 홈페이지 | www.joongwongolf.co.kr

캐슬렉스 제주 CC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KLPGA 회원 그린피, 객실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1) 회원, 동반자 그린피 할인
2) 골프장 객실 할인, 제주도 대회 참가 프로 예약시 객실료 별도 협의 가능
3) 골프장 및 객실 이용시 연습장 할인(바구니 5천 원)
담당자 | 주홍성 영업총괄팀장 연락처 | 064-793-6600 / 010-2697-0001

타니 CC

기간 | 2012년 ~

혜택 | KLPGA 정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 : 주중 6만 원,
할인 혜택은 주중에 한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55-831-7010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태광 CC

기간 | 2013년 9월 9일 ~

혜택 | 퍼블릭(전시간대, 휴일 포함) : 프로 1명 면제,
회원제(전시간대, 휴일 제외) : 프로 1명 회원 대우

연락처 | 070-8189-6100

홈페이지 | www.taekwangcc.co.kr

일반인 3명 동반 내장 시 할인혜택은 1팀 1명에 한함. 접수 시 회원증 제시

파가니카 CC

KLPGA 회원 그린피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회원, 회원 추천인, 동반자 그린피 할인(4인 1팀 기준 / 회원은 팀 당 1인 기준)

담당자 | 김영호 영업팀장 연락처 | 1566-6566

파인비치골프링크스

기간 | 2014년 3월 ~

혜택 | 1) 프로 1명 + 비회원 3명 : 프로는 주중 3만 원/ 주말 5만 원
2) 동반자는 당일팀 : 정상가 / 1박 2일 팀 : 패키지가 적용 프로 4명 : 주중 50% 할인
3) 프로 추천팀은 주중 2만 원 할인(단 카트비, 캐디피는 정상)

담당자 | 문창식 대리 연락처 | 063-320-3202

포천힐스 CC

기간 | 2015년 3월 1일 ~ 12월 31일

혜택 | 주중 1부(~08:30 이전) : 6만 원, 일요일 2부(12:30~이후) : 8만 원

연락처 | 031-538-7000(예약실)

한성 CC

기간 | 2015년 3월 ~

혜택 | 주중 1부(07:30 이전)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면제 (4인 1팀 기준)

해비치 CC 제주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프로는 골프장 회원요금, 동반자는 골프장 규정요금
연락처 | 프론트(064-766-6200), 익스프레스(064-780-8000)
홈페이지 | golf.haevichi.com (사전예약제로 운영)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기간 | 2015년 6월 12일 ~

혜택 | 주중 1부 아마추어 3인 동반 시 프로 1인 그린피 50,000원,
아마추어 2인 동반 시 프로 2인 그린피 65,000원

연락처 | 051-726-0752

힐드로사이 CC

기간 | 2014년 8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5만 원(4인 1팀 기준)

연락처 | 예약실 033-439-3333(유선 예약만 가능)

360도 CC

기간 | 2014년 1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주중 50% 할인(4인 1팀 기준),
1일 1회 본인에 한하며 주중 잔여 타임에만 가능

담당자 | 윤준섭 주임(031-880-3612) 연락처 | 031-880-3600

서울메디케어

혜택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1) 종합검진비 20% 감면, 비급여검사비 20% 감면
 - 2) 연계진료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 진행
- 의료혜택항목 | MRI, MDCT,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 비급여 영상검사 외



기간 | 2014년 10월 ~ 연락처 | 1644-0336
www.seoulmedicare.com

‘우리가족 평생건강 동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서울메디케어는 MRI 2대(1.5T 최신 Elastograph탑재), MDCT(128Slice), HD급 최신내시경, 프리미엄급 초음파 등 대학병원수준의 첨단장비를 보유해, 연령 및 금액에 따라 검사항목 선택이 가능한 CARE프로그램과 계통별 집중치료가 적용된 MEDI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검진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평생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 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서울메디케어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1) 종합검진비 20% 감면, 비급여검사비 20% 감면
 - 2) 연계진료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 진행
- 의료혜택항목 | MRI, MDCT,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 비급여 영상검사 외

연락처 | 1644-0336

홈페이지 | www.seoulmedicare.com

서울위드치과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비보험 진료 10~20% 할인

담당자 | 정흥주 부장

연락처 | 010-7796-0515 (사전예약제로 운영)

세브란스체크업

기간 | 2014년 9월 ~

- 혜택 | 1)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을 위한 패키지검진
 2) 지방 고객에 한하여 KTX 편도 금액 상당의 할인 혜택 제공(영수증 지참 必)
 3)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
 4)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5) 서비스 대상자가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으로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연락처 | 1588-7757 (사전예약제로 예약 필수)

위치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스턴 치과의원

기간 | 2012년 11월 ~

혜택 |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담당자 | 김민서 실장

연락처 | 02-563-2804

하늘안과의원

기간 | 2012년 7월 1일 ~

- 혜택 | 안구 종합검진(50여 가지 정밀검사) 무료,
 시력교정술비 혜택(라식, 라섹, 안내 렌즈삽입술, 노인수술),
 ONE-DAY 수술 가능(추가비용 없음),
 웨이브프론트 무료 수술희망 시 제휴 특가,
 KLPGA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시력교정술 할인

연락처 | 02-573-9779 (사전예약제로 운영)

LF몰 헤지스 골프, 닥스골프 할인

혜택

소비자 정상이 40% 할인

대상 | KLPGA 회원 (정회원 준회원 티칭프로), KPLGA 임직원

조건 | 인당 구매 금액 한도 소비자가 200만 원 내

적용 매장 | 전국 헤지스 골프, 닥스골프 백화점 및 단독 가두점



기간 | 2015년 4월 9일 ~ 2015년 12월 31일
대표 문의 전화 | 02-3441-8106 서영주 차장

회원 등록 및 활용방법

오프라인 | 전국 골프 매장 백화점 및 가두매장 방문 →

KLPGA 회원증 지참, 매니저에게 보여줌 →

매장 매니저 회원증/회원번호 확인 후 LF 멤버스 가입 후 (LF 멤버스 비회원일 경우) →

구매 → 회원 장부에 서명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헤지스골프, 닥스골프를 KLPGA 회원들에게 특별히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KLPGA회원대상 닥스골프, 헤지스골프 40% 할인은 LF가 제휴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며, 제휴회원이 되시면 40% 할인이외에 온라인 시크릿 행사 초청, 구매왕 사은품 증정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LF몰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백화점/가두점 매장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생활/문화

군산 세빌스 호텔

기간 | 2015년 5월 20일 ~

혜택 | 슈퍼리얼 트윈룸, 더블룸 198,000원 → 주중66,000원, 주말 88,000원, 조식 별도(15,000원)
담당자 | 김윤환 지배인 연락처 | 063-790-8082

군산 오스카스위트 호텔

기간 | 2014년 6월 11일 ~

혜택 | 디럭스더블 / 110,000원 → 60,000원(할인가)
디럭스 트윈 / 121,000원 → 50,000원(할인가)
스위트 더블 / 143,000원 → 88,000원(할인가)
스위트 트윈 / 154,000원 → 105,000원(할인가)
스위트 트리플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로얄테라스 스위트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스위트 더블 2인 기준 /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한 객실 추가 투숙 시 1인당 객실요금 10,000원, 조식 10,000원 제공
담당자 | 박진만 지배인 연락처 | 063-464-0505~6

그랜드컨벤션센터

기간 | 2013년 6월 ~ 선착순 50팀

혜택 | KLPGA 회원 각 직계 부모, 자녀 예식, 교회연, 돌잔치 할인(계약 순서에 따라 50팀)
담당자 | 유미영 차장, 신경선 과장 연락처 | 02-3667-9000, 7776

금호리조트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KLPGA 회원 및 직계 가족 객실 할인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이용방법 | 1) KLPGA 회원혜택 해당란을 통해 예약페이지 접속 후 예약 진행
2) 예약실 유선예약도 가능
연락처 | 02-737-5400(예약실)

까라디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까라디에서 제공하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정가의 50% 할인
연락처 | 02-545-4000

레드캡투어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하니문 최대 10% 할인, 직계가족, 대리 예약 등, 무이자 혜택 서비스
담당팀 | 레드캡투어 마케팅팀
연락처 | 02-2001-4500
기타 | 신규 KLPGA 회원의 경우,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KLPGA 회원의 경우, ID 및 패스워드는 KLPGA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린 필라테스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1) 골프 컨디셔닝 30% 할인, 2) 재활, 도수통증 관리 20% 할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SK허브 A동 263호
담당자 | 박해지 대표 연락처 | 031-602-7840 홈페이지 | blog.naver.com.rinpilates

(주)모리엔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모리엔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50% 할인,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이준형 과장 연락처 |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 www.ks1004.kr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 기입

베니키아 호텔 문막

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3월

혜택 | 스탠다드(2인) 154,000원 → 주중 60,000원, 주말 60,000원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 기준 투숙인원 초과 시 1명 당 10,000원 추가(7세 이상)
담당자 | 김주선 총지배인 연락처 | 033-734-7315
홈페이지 | www.munmakhotel.co.kr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관람 시 무료 입장
담당자 | 이몽은 학예사 연락처 | 02-2192-3005
개관시간 | 월~토 : 10시 30분~19시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퍼리어타워 지하2층
기타 | KLPGA 회원임을 밝혀주시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와룡산업 와플케어 개인용 온열기

기간 | 2014년 12월 ~

혜택 | 개인용 온열기 전품목 30% 할인
의료용(2인용) / 소비자가 700,000원 → 할인가 490,000원
의료용(1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2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1인용) / 소비자가 450,000원 → 할인가 315,000원
실속2인용 / 소비자가 500,000원 → 할인가 350,000원
투어용 / 소비자가 350,000원 → 할인가 245,000원
소파용 / 소비자가 250,000원 → 할인가 175,000원
방석 / 소비자가 120,000원 → 할인가 84,000원
배달개 / 소비자가 150,000원 → 할인가 105,000원

절차 |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김선옥 실장 연락처 | 031-977-8774
홈페이지 | www.waplecare.com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기입
본 혜택은 KLPGA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웰리힐리파크(구.성우리조트)

기간 | 2012년 12월 1일 ~

혜택 | 객실이용 시 기간별 특별요금으로 제공
객실예약 | www.wellihillipark.com/partnership
객실정산문의 | 1544-8833(ARS 1번)

제주 항공우주 호텔

기간 | 2014년 5월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슈퍼리어(9평) : 주중 70,000원, 주말 90,000원
디럭스(13평) : 주중 80,000원, 주말 100,000원
객실예약 | 064-747-4900 기타 | 성수기(7/18 ~ 8/17) 별도 요금 적용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 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풍리조트

기간 | 2015년 12월까지

혜택 | 객실(23㎡, 스탠다드 트윈/온돌) / 정상 요금: 133,000원

할인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60,000원, 주말(금, 토): 75,000원

담당자 | 박종미 연락처 | 02-422-8100

LF몰 헤지스 골프, 닥스골프 할인

기간 | 2015년 4월 9일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협회 홈페이지 접속 → LF몰(www.lfmall.co.kr) 헤지스 골프, 닥스골프

정상상품 정상소비자가 대비 40% 할인 (연간 한도 120만 원 / 실구매가 기준)

연락처 | 1544-5114(고객센터)

교육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eMA

기간 | 2014년 12월 19일 ~ 2016년 12월 18일(2년간)

혜택 | 학비감면, 입학 지원

- 1) 학비 감면 혜택: 등록금의 20% 감면
 한학기 등록금: 3,442,000원(20% 감면 시: 2,753,600원)
 ※ 입학금(입학 시 1회만 납부): 467,000원
- 2) 모집정원: 모집인원 증원 시 상호협의 하에 진행
- 3) 강사임용: 협회회원 지원 시 특전 부여(가산점 부여 할 수 있음)

담당자 | 정경일 교수 (3408-3817, 010-9357-0680)

연락처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3408-3740, 3703, 3704)

홈페이지 | www.emba.ac.kr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eMA)

- 1) 모집학과: 골프, 리조트경영학과
- 2) 모집인원: 총 00명
-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미실시) - 평가기준: 적성, 경력, 성적, 연구계획서 등

파고다 어학원

기간 | 2013년 4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매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오프라인 1강좌 + 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오프라인 강좌(월 1과목 수강 가능))

-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 종로점, 신촌점, 부산점)
- 각 지점 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 및 회원증 지참 필수
- 수강 가능 연령 30세 이하(84년 이후 출생로 제한 (온라인 강좌(월 2과목 수강 가능))
- KLPGT 홈페이지-멤버존-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 수강 가능 연령 제한 없이 전 회원 가능

신청기간 | 매월 17일 ~ 익월 10일

담당자 | 고영순 대리 연락처 | 02-6907-2857

기타 |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를 70% 미만일 경우 1년 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파고다 SCS(전화외국어)

기간 | 2014년 12월 ~ 2015년 3월 / 4월 ~ 7월 / 8월 ~ 11월 (연 3회)

혜택 | KLPGA 회원 무료 전화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 모집인원: 70명 (영어: 50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10명)

- 우선순위: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2) 교육기간: 매주 월요일 ~ 금요일(주3회 교육) / 매일 06:00 ~ 24:00 중 선택

3) 교육지원

- 주3회 10분 교육, 매월 교육비 100% 협회 지원(인당 약 60,000원)

- 사이버강의 무료 지원: 파고다 홈페이지 사이버강의 무료 수강

4) 지원기간: KLPGA에서 개인별 최대 4개월(총 48회) 지원

5) 신청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담당자 | KLPGA 김민주 대리

연락처 | 02-560-4426, FAX)02-539-6003 / manijoo@klpga.org

홈페이지 | klpga.npagoda.com/user/main

기타 | 1) 70%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자동 지원 중단되며,

출석을 미달 시점을 기산 월로 차후 1년간 전화영어교육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2) 매달 지원중단자에 대한 공석은 대기순위로 대체 (신규모집 시 대기순위 부여)

금융

하나카드

기간 | 2008년 ~

혜택 | KLPGA 플래티늄 카드 부가서비스

- 1) 연회비: 신규 발급 시 초년도 10만 원, 이후 2년차부터 연회비 평생 면제
- 2) 3개월 무이자 할부: 할부 가능한 전자명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 3)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PriorityPassCard 발급)
 - 플래티늄 카드에 한해 본인/가족 카드 자동 발급
- 4) 인천공항 허브 라운지 할인 서비스: 플래티늄카드 소지 고객 본인 20% 할인
- 5) 여행상품 할인서비스 (지정 예약처: 02-714-3434)
 - 국제선 항공권 7%, 국내선 5%, 해외패키지 7% 할인
- 6) 발레파킹: 인천공항 월 3회(주차비 별도), 특급호텔 월 3회(1일 3시간 무료주차)
- 7) 특급호텔: 10~30% 할인 서비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롯데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등)
- 8) S-OIL 리터당 50원 할인(LPG제외), 횡수 무제한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시 할인(2만5천 원)
- 9) 영화 할인 서비스(통합 월 1회): CGV, 메가박스,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 10)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통합 연 4회):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대전꿈틀이랜드 등
- 11) 보험: 해외여행 최고 5억 원, 휴일교통상해보험 최고 7천 5백만 원, 골프용품손해보험 최고 2백 50만 원, 출원원상금보험 50만 원 (정규 파3홀/연 1회)

담당자 | 하나카드 플래티늄 고객센터 연락처 | 080-220-5300

※ 2014년 6월 1일 신규 발급부터는

캐시백 적립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차년도부터는 면제됩니다.

※ 하나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며, 기존에 하나카드를 발급받은 신 분들 중 KLPGA 플래티늄 카드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김기성 세무사

기간 | 2013년 5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세무조사 자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장대행 및 세무컨설팅, 법인, 부가, 소득,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대행 및 상담

문의 | 김기성 세무사 연락처 | 02-516-7745

2015 TOUR SCHEDULE

투어, 꿈을 향한 무한도전!



대상포인트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종료시점

순위	이름	포인트
1	전인지	314
2	이정민	284
3	조윤지	227
4	김민선5	201
5	고진영	188

상금순위

순위	이름	상금
1	전인지	719,241,500
2	조윤지	517,520,000
3	이정민	513,358,750
4	고진영	466,148,750
5	박성현	352,143,415

New Heroine NH투자증권 신인상포인트

순위	이름	포인트
1	박지영	1092
2	김예진	943
3	박결	872
4	지한솔	856
5	박채윤	814

평균타수

순위	이름	평균타수
1	전인지	70.64
2	이정민	70.76
3	고진영	70.87
4	조윤지	70.88
5	이민영2	71.19

평균퍼팅

순위	이름	평균퍼팅수
1	전인지	29.61
2	조정민	29.81
3	정혜진	29.95
4	안송이	29.98
5	안신애	30.04

톱텐 피니쉬율

순위	이름	톱텐 피니쉬율
1	이정민	61.54
1	전인지	61.54
3	정재은	55.56
4	이민영2	54.55
5	조윤지	46.67

04 April

05 May

06 June

1 ~3

제5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일정: 5월 1일 ~ 3일
장소: 무주안성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김민선5(CJ오쇼핑)

5 ~7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일정: 6월 5일 ~ 7일
장소: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이정민(비씨카드)

9 ~12

제8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일정: 4월 9일 ~ 12일
장소: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김보경(요진건설)

8 ~10

제2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일정: 5월 8일 ~ 10일
장소: 인터불고경산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고진영(넥스)

12 ~14

제9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일정: 6월 12일 ~ 14일
장소: 엘리시안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15 ~17

201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정: 5월 15일 ~ 17일
장소: 수원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정민(비씨카드)

17 ~19

삼천리 Together Open 2015
일정: 4월 17일 ~ 19일
장소: 아일랜드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18 ~21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일정: 6월 18일 ~ 21일
장소: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박성현(넥스)

2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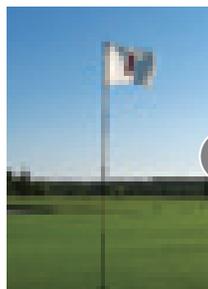
백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5
일정: 4월 24일 ~ 26일
장소: 가야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고진영(넥스)

21 ~24

2015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일정: 5월 21일 ~ 24일
장소: 라데나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25 ~28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5
일정: 6월 25일 ~ 28일
장소: 아일랜드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장하나(비씨카드)



29 ~31

티 채리티 오픈
일정: 5월 29일 ~ 31일
장소: 휘닉스스프링스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이정민(비씨카드)

07
July

3 ~5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일정 : 7월 3일 ~ 5일
장소 : 웨이하이 포인트, 중국
총상금 : 5억 원
우승자 : 김효주(롯데)

10 ~12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일정 : 7월 10일 ~ 12일
장소 : 버치힐
총상금 : 5억 원
우승자 : 고진영(벵스)

16 ~19

**BMW Ladies Championship
2015**

일정 : 7월 16일 ~ 19일
장소 : 스키야 72
총상금 : 12억 원
우승자 : 조윤지(하이원리조트)

23 ~26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일정 : 7월 23일 ~ 26일
장소 : 블루헤런
총상금 : 8억 원
우승자 : 전인지(하이트진로)

08
August

7 ~9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일정 : 8월 7일 ~ 8월 9일
장소 : 오라
총상금 : 5억 원



20 ~23

BOGNER-MBN 여자오픈

일정 : 8월 20일 ~ 23일
장소 : 더스타휴
총상금 : 5억 원

27 ~30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일정 : 8월 27일 ~ 30일
장소 : 하이원
총상금 : 8억 원

09
September

3 ~6

한화금융 클래식 2015

일정 : 9월 3일 ~ 6일
장소 : 골든베이
총상금 : 12억 원

10 ~13

**이수그룹
제37회 KPGA 챔피언십**

일정 : 9월 10일 ~ 13일
장소 : 페럼
총상금 : 7억 원

18 ~20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

일정 : 9월 18일 ~ 20일
장소 : 엘리시안 강촌
총상금 : 6억 원

24 ~26

YTN·볼빅 여자오픈

일정 : 9월 24일 ~ 26일
장소 : 레이크우드
총상금 : 5억 원

10
October

2 ~4

**OKSavingsBank 박세리
Invitational (가칭)**

일정 : 10월 2일 ~ 4일
장소 : 솔모로(2014년 기준)
총상금 : 6억 원

15 ~18

**LPGA KEB·HanaBank
Championship**

일정 : 10월 15일 ~ 18일
장소 : 스키야 72
총상금 : 200만 불

22 ~25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일정 : 10월 22일 ~ 25일
장소 : 남촌(2014년 기준)
총상금 : 7억 원

30 ~11/1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일정 : 10월 30일 ~ 11월 1일
장소 : 레이크힐스 용인
(2014년 기준)
총상금 : 5억 원

11
November

6 ~8

**ADT CAPS Championship
2015**

일정 : 11월 6일 ~ 8일
장소 : 롯데스카이힐 김해
(2014년 기준)
총상금 : 5억 원

13 ~15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일정 : 11월 13일 ~ 15일
장소 : 잭니클라우스(2014년 기준)
총상금 : 7억 원



12
December

5 ~6

00 국가대항전(가칭)

일정 : 12월 5일 ~ 6일
장소 : 일본
총상금 : 미정

11 ~13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일정 : 12월 11일 ~ 13일
장소 : 미션힐스 중국
총상금 : 55만 불

종료대회

08
August

0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		일정 : 8월 31일 ~ 9/1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 원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15차전	
2				일정 : 10월 1일 ~ 2일 장소 : 킹스데일GC 총상금 : 3천만 원	KLPGA 2015 무안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20차전
3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9차전				일정 : 11월 2일 ~ 3일 장소 : 무안 총상금 : 7천만 원
4	일정 : 8월 3일 ~ 8월 4일 장소 : 신안 총상금 : 3천만 원				
5					
6				KLPGA 2015 SBS골프 시니어투어 13차전 일정 : 10월 5일 ~ 7일 장소 : 미정 총상금 : 4천만 원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16차전 일정 : 10월 5일 ~ 6일 장소 : 킹스데일GC 총상금 : 3천만 원
7					KLPGA 2015 무안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7차전 일정 : 10월 7일 ~ 8일 장소 : 무안 총상금 : 7천만 원
8					
9					
10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9차전				
11	일정 : 8월 10일 ~ 11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 원				
12	KLPGA 2015 Kan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1차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13	일정 : 8월 12일 ~ 13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 원	일정 : 8월 12일 ~ 13일 장소 : 신안 총상금 : 3천만 원			
14					
15		KLPGA 2015 SBS골프 시니어투어 11차전		KLPGA 2015 무안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8차전	
16		일정 : 9월 14일 ~ 16일 장소 : 미정 총상금 : 4천만 원		일정 : 10월 14일 ~ 15일 장소 : 무안 총상금 : 7천만 원	
17	KLPGA 2015 Kan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2차전				
18	일정 : 8월 17일 ~ 18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 원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13차전			
19					
20	KLPGA 2015 Kan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3차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1차전			
21	일정 : 8월 19일 ~ 20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 원	일정 : 8월 19일 ~ 20일 장소 : 신안 총상금 : 3천만 원			
22			KLPGA 2015 무안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6차전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14차전	KLPGA 2015 무안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9차전
23			일정 : 9월 21일 ~ 22일 장소 : 무안 총상금 : 7천만 원	일정 : 9월 21일 ~ 22일 장소 : 킹스데일GC 총상금 : 3천만 원	일정 : 10월 21일 ~ 22일 장소 : 무안 총상금 : 7천만 원
24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10차전				
25	일정 : 8월 24일 ~ 25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 원	KLPGA 2015 SBS골프 시니어투어 12차전			
26					
27	KLPGA 2015 Kan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4차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			
28	일정 : 8월 26일 ~ 27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 원	일정 : 8월 26일 ~ 27일 장소 : 신안 총상금 : 3천만 원			
29					드림투어
30					점프투어
31	KLPGA 2015 Kangsan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5차전				시니어투어
					종료대회

August 8 KLPGA TOUR

미리 둘러보는 8월 KLPGA투어

어느덧 8월, 하반기 투어가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를 시작으로 힘차게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체력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띄약별 더위도 말끔히 날려버릴 선수들의 시원한 플레이를 기대해본다. 상반기보다 더욱 불꽃 튀는 순위 경쟁이 예상되는 하반기 투어. 그 뜨거운 8월의 대회현장 속을 미리 가본다.

글 김소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 위치한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프리미엄 생수 제주 삼다수를 널리 알리고,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이 대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US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랭킹 1위의 박인비가 출전해 기대가 된다. 올시즌 처음으로 국내팬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박인비의 플레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지난 대회에서 연장 접전 끝에 초대 챔피언의 영예를 차지하며 9시즌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의 기쁨을 누린 윤채영이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한다. 이외에도 업치락뒤치락 선수들의 치열한 순위경쟁이 불만하다. 대회는 5억 원의 규모로 치러지며, 오라 컨트리클럽 동(OUT)코스, 서(IN)코스(파72/6,519야드)에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다.



코스소개

365일 푸르름이 가득한 오라 컨트리클럽은 영주십경 중의 하나인 한라산 영구춘화의 계곡을 따라 지형적인 레이아웃을 그대로 살린 대자연의 코스가 특징이다. 최상의 기후조건과 천혜의 자연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36홀 코스로 구성된 오라 컨트리클럽은 사계절 내내 편안하고 여유로운 골프를 즐길 수 있다. 한라산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 코스, 계곡과 숲이 어우러져 난이도 높은 동 코스, 드넓은 초원을 연상하게 하는 서 코스로 이뤄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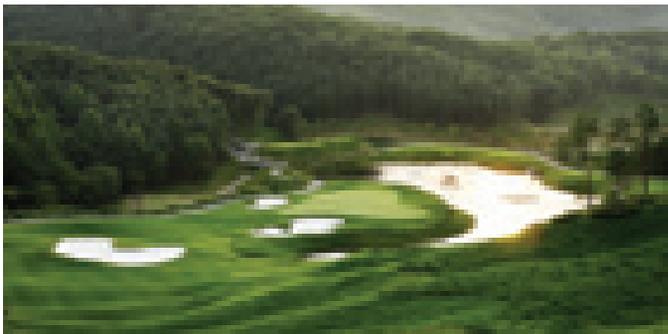
‘BOGNER-MBN 여자오픈’이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양평 더스타휴 골프&리조트에서 열린다. 2013년 창설돼 3년 째를 맞는 본 대회는 올해 명품 골프웨어 브랜드 ‘BOGNER’가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지난해에는 ‘역전의 여왕’ 김세영이 또 다시 역전승에 성공해 우승컵을 거머쥐어 화제를 낳았다. 올해에도 지난해 이 대회에서 시즌 베스트 성적을 거둔 박성현을 비롯해, 상금순위를 앞다투고 있는 전인지, 이정민, 올시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김민선5, 조윤지, 배선우 등의 치열한 우승컵 경쟁이 기대된다.

대회는 총상금 5억 원, 우승상금 1억 원의 규모로 열리며,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휴(OUT)코스과 스타(IN)코스(파72/6,672야드)에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다.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이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올린다. 하이원리조트에서 주최한 이 대회는 2008년에 처음 개최되어 2010년까지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재창설됐다. 이 대회는 국내 최초로 채리티 콘셉트를 도입해 그동안 강원지역의 소외계층을 도왔으며, 총상금액의 10%를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며 골프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본 대회에서는 USLPGA에서 활약하는 장하나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여하고, JLPGA에서 활동중인 김하늘이 출전해 기대를 모은다. 또한 서희경, 유소연, 안신애, 장하나 등의 스타플레이어가 배출된 대회기에 이번에도 새로운 스타플레이어의 탄생을 기다려본다.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은 하이원 컨트리클럽 마운틴(OUT)코스과 밸리(IN)코스(파72/6,667야드)에서 펼쳐지며,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4라운드 진행된다.



코스소개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더스타휴 골프&리조트는 풍수지리상 거북이 알을 낳는 지형으로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다. 수려한 숲 속에 탄생된 코스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전 홀이 독립적으로 배치됐다. 특히 코스 대부분이 산책로로 조성돼 있고, 피톤치드가 넘쳐나 건강한 휴식이 더해지는 산림욕까지 맛볼 수 있다. 전략이 요구되는 휴 코스, 자연이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난 스타 코스로 이뤄져 있다.

코스소개

해발 1,137미터에 위치한 하이원 컨트리클럽은 전장 6,592미터의 18홀(파72) 퍼블릭 골프장이다. 고원지대에 조성된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과 코스 레이아웃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태백산맥의 능선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어우러진 하이원 컨트리클럽은 넓은 고원에서 굽어보며 라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한여름에도 섭씨 25도를 넘지 않는 백두대간의 시원한 바람과 마주할 수 있다. 마운틴 코스와 밸리 코스로 이뤄져 있는 골프장은 공기 저항이 적은 산악형 코스이기때 매 홀마다 전략이 요구된다.

8월 온라인 참가신청 안내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7	28	29	30	31	1	2
시니어투어 2차 디비전(6~10차전)						
				점프투어 3차 디비전(9~12차전) - 시드순위자		2015 KLPGA 정규투어(9월대회신청)
KLPGA 회장배여자아마골프선수권(중·고·대학부/초등부 5,6학년)						
3	4	5	6	7	8	9
시니어투어 2차 디비전(6~10차전)						
2015 KLPGA 정규투어(9월대회신청)			드림투어 3차 디비전(11~15차전) - 시드순위자			
				점프투어 시드순위자 4차(13~16차전)		
KLPGA 회장배여자아마골프선수권(중·고·대학부/초등부 5,6학년)						
10	11	12	13	14	15	16
시니어투어 2차 디비전(6~10차전)						
				점프투어 4차 디비전(13~16차전) - 시드권자		
			시니어투어 3차 디비전(11~13차전) ~ 10/14(수)			
				점프투어 시드순위자 4차(13~16차전)		
KLPGA 회장배여자아마골프선수권(중·고·대학부/초등부 5,6학년)						
17	18	19	20	21	22	23
시니어투어 2차 디비전(6~10차전)						
			드림투어 시드순위자 4차(16~20차전)			
				점프투어 4차 디비전(13~16차전) - 시드권자		
				드림투어 4차 디비전(16~20차전) - 시드권자		
				시니어투어 3차 디비전(11~13차전) ~ 10/14(수)		
KLPGA 회장배여자아마골프선수권(중·고·대학부/초등부 5,6학년)						
24	25	26	27	28	29	30
드림투어 시드순위자 4차(16~20차전)						
점프투어 4차 디비전(13~16차전) - 시드권자			드림투어 시드전 4차(16~20차전) - 점프투어 특전자			
				드림투어 4차 디비전(16~20차전) - 시드권자		
				시니어투어 3차 디비전(11~13차전) ~ 10/14(수)		
31	1	2	3	4	5	6
시니어투어 3차 디비전(11~13차전) ~ 10/14(수)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13차전, 14차전, 15차전, 16차전 대회일정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드순위전	9/7(월) ~ 9/11(금)	변경 없음
13차전	9/16(수) ~ 9/17(목)	9/17(목) ~ 9/18(금)
14차전	9/23(수) ~ 9/24(목)	9/21(월) ~ 9/22(화)
15차전	10/5(월) ~ 10/6(화)	10/1(목) ~ 10/2(금)
16차전	10/12(월) ~ 10/13(화)	10/5(월) ~ 10/6(화)

상금순위 동순위자 시드권 부여

각 투어별 상금순위 동순위자의 차기 시즌(또는 디비전) 시드권 부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내용	비고
<p>각 투어별 대회요강 및 출전자격리스트에서 특정 순위자 시드권 부여 관련 모든 조항에 아래 문구 삽입</p> <p>“상금이 동 금액일 경우 당해연도 누적 평균 최저타수로 결정한다.”</p>	<p>※ 실시시기 : 2015년 8월 1일</p> <p>(드림투어 3차 디비전, 점프투어 3차 디비전)부터 실시</p>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박성현, 역전패 딛고 첫 메이저 제패



프로 2년 차인 박성현이 2주 전 역전패의 아픔을 딛고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차지했습니다. 박성현은 21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우승을 눈앞에 두고 트리플보기를 적어내는 등 5타를 잃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도 타수를 줄이지 못한 덕에 합계 1오버파 289타로 힘겹게 우승 문턱을 넘었습니다. 2주 전 롯데컨타이너 여자오픈 마지막 날 3타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전으로 끌려가 역전패를 당했던 박성현은 프로 데뷔 2년 차에 첫 우승과 함께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성현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 2억 원과 2019년까지 4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출전권을 받았습니다.

이정민이 3오버파 291타로 2위, 안신애와 양수진이 4오버파 292타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2주 전 역전패를 안겨줬던 이정민과 챔피언조에서 맞붙은 박성현은 전반에 버디 퍼트를 잇따라 놓쳐 타수를 줄이지 못하다가 9번홀(파4)에서 3퍼트로 1타를 잃었습니다. 5타 뒤진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이정민은 5번홀(파3)과 6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이정민은 박성현이 보기를 한 9번홀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뒤 벙커에 빠뜨린 뒤 2타 만에 빠져나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홀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낸 이정민은 박성현과의 격차가 4타로 벌어졌습니다. 이 사이 양수진이 13번홀까지 버디 5개를 몰아치며 박성현을 압박했습니다. 10번홀(파5)에서 8미터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해 분위기를 전환한 박성현은 11번홀(파4)에서도 두 번째 샷을 1미터에 붙인 뒤 또 1타를 줄여 한숨을 돌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3번홀(파4)에서 그린을 놓친 뒤 어프로치 샷이 짧아 다시 1타를 잃은 박성현은 14번홀(파5)에서 티샷을 오른쪽 워터 해저드로 날려보내 위기를 맞았습니다. 1벌타를 받고 친 세 번째 샷을 페어웨이로 꺼냈지만 네 번째 샷을 그린 오른쪽 벙커에 빠뜨렸습니다. 벙커에서 친 다섯 번째 샷마저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한 박성현은 결국 트리플보기로 돌아와 양수진과 이정민과의 격차는 순식간에 2타로 좁혀졌습니다. 15번홀(파4)에서도 티샷을 페어웨이 벙커로 보내는 등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인 박성현은 390미터의 긴 파4인 16번홀에서도 1타를 잃었습니다.

이 홀에서 이정민도 그린을 놓쳐 세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에 올려 보기를 적어내 격차는 2타차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현은 17번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에 올려놓고 3퍼트를 하는 바람에 1타차로 추격을 당한 채 18번홀(파4)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홀에서도 두 번째 샷을 홀에서 10미터가 넘는 곳에 떨어뜨렸지만 2퍼트로 마무리해 어렵게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 마지막 날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걱정에도 2만 3천여 명의 갤러리가 몰려 코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사제공 - SBS 권중오 기자)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5 장하나, 올해 첫 출전한 국내 대회서 우승

미국 LPGA 무대에서 뛰는 여자골프 스타 장하나가 올해 첫 출전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장 하나는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최종합계 12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장수연, 정희원, 하민송 등 공동 2위 3명을 1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LPGA에 진출하기 전인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오픈 이후 10개월 만에 우승을 추구한 장 하나는 국내 통산 7승 짜를 올렸습니다. 선두에 4타 뒤진채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장 하나는 전반에만 3타를 줄이면서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13번홀 버디로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17번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한 장 하나는 마지막 홀에서 짧은 퍼트를 놓쳐 보기를 범했지만 1타 차로 우승했습니다. 시즌 4승을 노렸던 이정민과 전인지는 합계 9언더파, 공동 6위로 마쳤습니다. 올시즌 최고의 라이벌로 떠오른 두 선수는 1라운드부터 나올 연속 똑같은 스코어를 적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사제공 - SBS 서대원 기자)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김효주 4타차 완승, 대회 2연패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투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서 김효주가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효주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포인트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이븐파를 적어내며 최종합



계 10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2위 평산산을 4타 차이로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KLPGA투어 시즌 개막전인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던 김효주는 7개월 만에 시즌 2승 짜를 기록했습니다. 3타차 단독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김효주는 2번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파3 홀인 4번과 5번홀에서 연속보기를 범하며 잠시 흔들렸지만, 파5 6번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핀 1미터 거리에 붙여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김효주는 동반 플레이를 한 지한솔이 전반에만 3타를 잃고 장하나가 10번홀과 13번홀에서 더블 보기를 범하며 무너지는 사이 14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해 승부에 쐬기를 박았습니다. 마지막 18번홀에서는 연이은 실수로 보기를 범하고도 2위와 4타 차 완승을 거뒀습니다.

김효주는 중국에서 열린 KLPGA 대회에서 통산 4승을 올려 중국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기사제공 - SBS 김형열 기자)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고진영 '시즌 3승' 상금 4억 원 돌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초정탄산수·용평리조트 오픈에서 고진영이 시즌 세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진영은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 버치힐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고진영은 지난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와 5월 교촌하니 레이디스오픈에 이어 시즌 세 번째 우승을 기록한 것은 물론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의 영예를 챙겼습니다.

또 전인지와 이정민에 이어 시즌 3승 선수 대열에 합류해 한국여자골프 상금왕과 다승왕, 대상 경쟁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 2라운드 연속 5언더파를 때려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고진영은 8번홀까지 버디 3개를 잡아내며 4타 차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거세게 추격한 신인 김예진에게 잠시 공동선두를 내줬지만 파4 15번홀 버디로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은 뒤 나머지 3개 홀을 파로 잘 막아냈습니다.

김예진은 15번홀(파4) 버디로 공동선두까지 따라 붙었으나 17번, 18번홀에서 잇따라 맞은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쉽게 1타 차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김예진은 투어 입문 이래 최고 성적으로 신인왕 레이스 1위로 올라섰습니다.

고진영은 우승 상금 1억 원을 보태 시즌 상금을 4억 4천75만 원으로 늘려 전인지, 이정민에 이어 시즌 상금 4억 원을 돌파한 세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전인지와 이정민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US여자오픈에 출전하느라 이번 대회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사제공 - SBS 강창원 기자)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5 조윤지, '버디쇼'로 역전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신설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조윤지 선수가 화려한 버디쇼를 펼치며 역전 우승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조윤

지는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몰아쳐 '코스 레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최종 합계 18언더파를 기록해 2위 김민선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0년 볼빅 라이언스코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5년 만에 통산 두번째 우승을 차지한 조윤지는 우승 상금 3억 원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조윤지는 지난 1997년 프로야구 삼성 감독대행을 지낸 조창수 씨와

왕년의 여자배구스타 조혜정 씨의 딸입니다.

시즌 2승을 노렸던 김민선은 마지막 날 6타를 줄이며 선전했지만 조윤지의 기세에 밀려 준우승했고,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배선우는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6위로 마쳤습니다.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자마자 귀국해 곧바로 대회에 출전했던 전인지는 피로 누적과 컨디션 난조로 최종 라운드에 앞서 기권했습니다.

(기사제공 - SBS 서대원 기자)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6차전 조윤정, 연장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 컨트리클럽(파72/6,413야드) 마운틴(OUT), 레이크(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6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4백만 원)'에서 조윤정(20,중앙대학교)이 두 홀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선두와 6타차 공동 26위로 최종라운드에 오른 조윤정은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71-67)를 기록했고, 오늘날 6타를 줄인 정슬기(20)와 동타로 경기를 마쳐 연장 접전에 돌입했다.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은 조윤정이 파를 기록한 정슬기를 제치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조윤정은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입을 뗀 후, "선두와 타수 차가 큰 상태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승까지는 생각지 못했는데 우승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2013년 7월에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한 조윤정은 지난해 드림투어 8차전과 11차전에서 3위, 이번 시즌 드림투어 3차전에서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조윤정은 "친한 친구들이 모두 우승을 하면서 나도 빨리 우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예선전을 통해 정규투어인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 출전했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좋은 경험을 한 것이 오늘 우승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7차전 박지연, 생애 첫 우승 달성!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 컨트리클럽(파72/6,413야드) 마운틴(OUT), 레이크(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7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4백만 원)'에서 박지연(20,한국체대3)이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선두와 1타 차 공동 5위로 최종라운드
에 오른 박지연은 전반 버디 5개, 보기 1
개, 더블보기 1개로 기록 있는 플레이를
했다. 이어지는 후반 차분하게 파 행진
을 이어가던 박지연은 1타 차 선두를 달
리다가 18번홀(파4,367야드)에서 보기를

범해 최종합계 5언더파 139타(68-71)를 기록했다. 마지막 홀 보기로 김지영(19, 용인
대2)과 연장 접전을 펼친 박지연은 10미터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넣으며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박지연은 "우승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오늘 전체적으로 기록이 심했는데 더블보기
이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플레이해서 만회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정말 기
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지연은 "연장 승부에서 상대 선수가 버디 퍼트에 실
패하고 마크를 한 후, 내가 10미터 거리의 버디 퍼트를 했다. 들어가면 우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떨렸다. 치는 순간 들어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쉽지
않은 라인이었는 데 운도 조금 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5살 때부터 골프를 해온 박지연은 2012년과 2013년에 국가 상비군을 지냈고, 2013
년 11월에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했다.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8차전 김아림, 시즌 2승 달성!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 컨트
리클럽(파72/6,413야드) 마운틴(OUT), 레
이크(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이
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8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4
백만 원)에서 김아림(20, 용인대학교)이

우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선두와 2타 차 공동 2위로 최종라운드에 오른 김아림은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
어 2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6-70)로 경기를 마쳤다. 김아림은 "최근
에 급격히 체중이 줄면서 샷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만큼 퍼트와 어프로치 동작에
집중한 것이 우승에 도움이 됐다."고 말한 뒤, "이번 대회를 통해 컨디션이 좋지 않
아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 우승만큼 값진 결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아림은 "한 달 뒤 가장 더운 시기가 오면 몸 상태가 좋아지는 편이다. 오늘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승했기 때문에 한 달 뒤가 더 기대된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즌 3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9차전 최민경, 우승 차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
컨트리클럽(파72/6,413야드) 마운틴
(OUT), 레이크(IN) 코스에서 열린 'KLP
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9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4백만 원)에서 최민경



(22세종대학교1년)이 연장 2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선두와 1타 차 공동 2위로 최종라운드에 들어선 최민경은 버디 4개와,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를 묶어 1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67-71)로, 전날 6언더파
단독선두였던 한상희(25)와 그리고 최종라운드에서 2타를 줄인 김유나(19)와 함께
공동선두에 올라 승부를 연장전으로 이어 갔다. 연장 첫 번째 홀에서는 버디를
기록한 최민경과 김유나가 파를 기록한 한상희를 제쳤고, 연장 마지막 두 번째
홀에서는 파 퍼트를 성공시킨 최민경이 김유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민경은 "기분이 얼떨떨하고, 올해 드림투어 챔피언연조에 나갔던 적이 몇 번 있었고,
늘 뒷심부족으로 우승을 놓친 적이 있었는데, 골프를 지도해주시는 프로님께서
늘 실력으로 싸우지 말고 정신력으로 싸우라는 말을 마음속에 되뇌이고, 집중하
는 것이 우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민경은 2010년도에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냈으며, 2011년 6월에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하였고, 그 이듬해
KLPGA 2012 무안CC컵 드림투어 14차전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5차전 정지민, 2타차 생애 첫 우승!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클
럽(파72/6,231야드) 서, 동 코스에서 열
린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
어 5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
백만 원)에서 정지민(19, 코브라푸마골프)
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2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정지민은 전반 3번홀부터 5번홀까지 세 홀 연속 버디
를 잡으며 우승컵에 가까워졌다. 정지민은 이어지는 6번홀(파5,519야드)의 세 번째
샷이 해저드에 빠지며 보기를 범한 후, 파 행진을 거듭하다 15번홀(파3,142야드)에서
다시 보기를 범했으나 이에 흔들리지 않고 16번홀부터 마지막 홀까지 세 홀 연속 버
디를 잡으며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7-68)로 2타차의 여유로운 우승을 차지했다.
정지민은 "15번홀까지 공동 선두였다. '이제부터 실수하면 우승은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경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지민은 “마지막 홀은 파만 해도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버디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3년 4월, KPGA 준회원으로 입회한 정지민은 지난해 처음 출전한 점프투어 2차전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기록했으며, 꾸준히 점프투어에 출전해 지난 대회인 점프투어 4차전에서 12위를 차지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후 마침내 첫 우승의 꿈을 이뤘다.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6차전 서여정, 생애 첫 우승!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 클럽(파72/6,270야드) 동, 남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6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 마지막 날, 5언더파를 몰아친 서여정(22, 강원

관광대학교)이 감격의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움켜쥐었다.

1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를 기록하며, 2언더파 70타 공동 10위로 최종라운드에 임한 서여정은 1번홀(파5,542야드)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5번홀(파4,349야드), 7번홀(파5,488야드)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첫 우승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으나, 8번홀(파4,371야드) 티샷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보기를 기록해 잠시 주춤했다. 이어지는 후반 12번(파5,513야드)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타수를 줄였고, 14번홀(파4,377야드)에서 80야드 거리를 남기고 52도 웨지로 친 서드샷이 그대로 홀 컵에 들어가는 행운의 버디를 낚은 뒤, 마지막 18번홀(파4,331야드)에서도 버디를 잡으며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생애 첫 트로피를 품에 안은 서여정은 “첫날, 선두 성적과 3타 차여서 우승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다른 것에 신경쓰지 않고 내 플레이에만 집중해서 임했는데, 그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 우승을 차지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여정은 “2011년 4월에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한 후 성적이 좋지 않아 심적으로 힘들어서, 최근 2년동안 투어에 거의 참가하지 않고 쉬었고, 쉬는 기간 스윙교정도 바꾸고, 개인적으로 충전의 시간을 가진 것이 오늘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결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7차전 정지민, 2주 만에 시즌 2승 수확!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클럽(파72/6,154야드) 남, 서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7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에서 정지민(19,코브라푸마골프)이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7-69)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시즌 2승을 거뒀다.



1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기록하며 한 타 차 공동 선두에 올랐던 정지민은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만 잡아내는 무결점 플레이를 선보이며 침착하게 우승을 거뒀다.

지난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5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던 정지민은 두 경기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단숨에 점프투어 상금순위 1위로 뛰어 올랐다.

정지민은 “내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퍼트가 따라주지 않아 아쉬웠는데 차분히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 도움이 됐다.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1타 차의 극적인 우승이었다. 정지민은 “18번홀 티샷 직전 한 타 차 선두인 사실을 알게 돼 긴장했다.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3년 4월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한 정지민은 지난해 첫 출전한 'KLPGA 2014 보성CC·카스코배 점프투어 5차전'에서 준우승하며 기대를 모았고 올시즌 빼어난 성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8차전 이나라, 생애 첫 우승 차지!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 클럽(파72/6,231야드) 서, 동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8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에서 이나라(19)가 우승을 차지했다.



중간합계 1오버파 73타, 선두와 5타 차로 출발한 이나라는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골라잡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5언더파 139타(73-66)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나라는 “선두와 타수 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승은 예상치 못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정말 기분이 좋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시작한 이나라는 그해 말레이시아로 넘어가 중학교 3학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골프를 했다. 아마추어 대회에 몇 차례 참가했지만 우승은 없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준회원 실기평가를 통해 올해 4월 입회한 후 3개월 만에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나라는 “평소 퍼트가 가장 자신 있는 편인데, 최근 들어 퍼트에 어려움을 겪어 연습을 무척 많이 했다. 오늘 샷도 좋았지만, 퍼트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점프투어 4개 대회(5차전~8차전)에 모두 출전하고 평균 타수 74타 이내에 든 준회원 중 상금 순위 상위 14명이 정회원으로 승격했으며, 평균 타수 79타 이내를 기록한 아마추어(이론교육 이수자) 중 상위 5명이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6차전 이광순, 연장 접전 끝 시즌 첫 승!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센추리21 컨트리클럽(파72/5,780야드) 파인,레이크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6차전(총상금 4천만 원, 우승상금 8백만 원)'에서 이광순(46,볼빅)이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선두 그룹에 한 타 뒤진 공동 3위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이광순은 전반 버디 4개를 낚으며 손조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후반 들어 15번홀(파3,1460야드), 18번홀(파4,3480야드)에서 잇따른 보기를 범하며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70-70)로 이영미(52, 미즈노)와 함께 연장전에 돌입했다. 이어진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침착하게 파를 지킨 이광순은 티샷을 해저드에 빠뜨려 보기를 범한 이영미를 제치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광순은 "1년 만에 우승하게 돼 정말 행복하다. 전반에는 샷과 퍼트의 조화가 잘 이뤄졌으나 후반 들어 마음이 조금해지면서 샷이 흐트러졌다. 연장전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승해서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광순은 "지난주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선수권대회에 출전했었다. 전장이 긴 곳에 적응이 되었다 보니 오늘 비교적 쉽게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광순은 지난 'KLPGA 2011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1차전'에서 시니어투어 첫 우승을 거둔 이후 통산 7승째를 수확했다.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7차전 서예선, 연장 끝 시즌 3승 수확!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센추리21 컨트리클럽(파72/5,898야드) 필드,밸리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7차전(총상금 4천만 원, 우승상금 8백만 원)'에서 서예선(44)이 시즌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서예선은 첫 번째 홀에서 3퍼트로 인한 보기를 범했으나 전반 3개의 버디를 추가하며 이를 만회했다. 감을 끌어올린 서예선은 후반 버디 4개를 쓸어담으며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9-66)로 정일미(43,호서대)와 함께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 두 번째

홀[18번홀(파5,4630야드)]에서 투온에 성공한 서예선은 투퍼트로 기분 좋게 버디를 낚으며 보기에 그린 정일미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차전, 5차전에 이은 시즌 세 번째 우승이다. 서예선은 "예상치 못한 우승이었다.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것도 아니었고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 쫓아와서 내 플레이만 하자고 생각했는데 잘 풀렸다."고 말했다. 1994년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한 서예선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규투어에서 활동했다. 정규투어에서 기록한 최고 성적은 2001년 '제2회 마주앙 여자오픈'에서 기록한 2위이며 2013년부터 시니어투어에 몸담았다.

서예선은 "정규투어 활동 당시 우승을 못한 것에 대해 늘 아쉬움이 남았었다. 다른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던 정규투어와 달리 시니어투어에서는 내 공만 치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며 시니어투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KLPGA 박희정 이사, 중국 국가대표 여자팀 코치 위촉식 가지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 박희정 이사(35)가 중국 국가대표 여자팀 코치로 선임됐다.



KLPGA는 2일(목), 3번째 공동 주관대회로서 한중 양국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이 열리는 중국

웨이하이포인트 호텔&골프리조트에서 박희정 이사 코치 선임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정식으로 중국 국가대표 여자팀을 맡은 박희정은 2016년까지 2년간 중국 골프 꿈나무들을 지도하게 된다.

박희정은 "중국에서 아마추어들에게 개인 레슨을 하고 골프 마케팅 계획을 세우면서 중국여자골프에 관심을 갖게 됐다. 또한,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등 중국에서 열리는 KLPGA 대회를 참관하며 중국 협회와 인연을 맺었던 것이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어졌다."며 코치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다.

호주 국가대표 출신인 박희정은 1998년 KLPGA에 입회했고 그해 '1998 스포츠서울 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0년부터 USLPGA투어로 무대를 옮긴 박희정은 2001년 '윌리엄스 챔피언십'과 2002년 '사이베이스 빅애플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2011년 KLPGA 투어에 복귀한 후 2012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 후에는 콜로리아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해 후배 양성에 힘써왔으며 2011년 11월부터는 KLPGA 이사로 재직 중이다.

박희정은 "뜻깊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중국 골프팬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선수층이 얇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심분 활용해 중국 골프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더불어 KLPGA 소속 선수로서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ST PHOTO

베스트 포토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비씨카드·한경 레디스컵 2015,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KLPGA 공식 사진기자인 박준석 사진기자가 직접 선정한 2015 KLPGA투어 베스트 포토입니다.

사진 _ KLPGA 공식사진기자 박준석



▶ 박성현 |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4번홀 서드샷 날리고 있는 박성현

▶ 윤채영 |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윤채영이 신중하게 17번홀 그린을 샅피고 있다.



▶ 양수진 |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양수진의 18번홀 세컨드샷

▶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18번홀에 몰려든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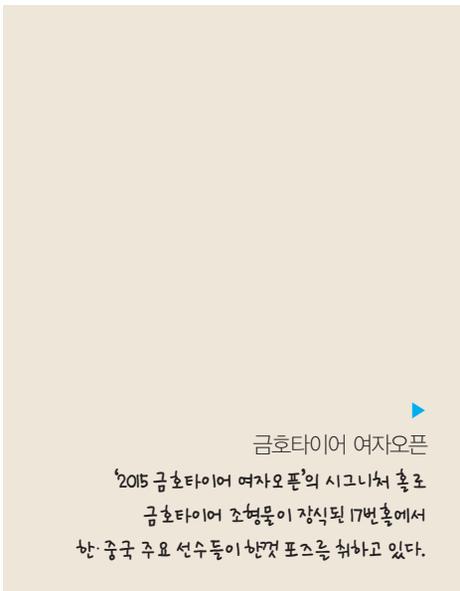
강예린 |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5
12번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건으로 얼굴을 감고 코스를 바라보고 있는 강예린



지한솔 |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5
징검다리 건너 7번홀 그린으로 이동하는 지한솔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5
KLPGA 객원마케터, 중계방송 부스 등 방문하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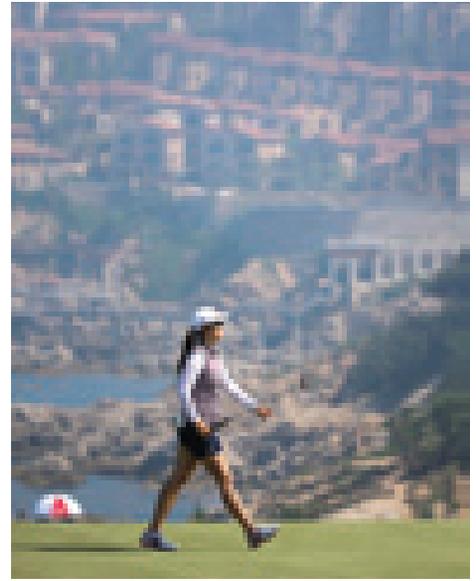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2015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의 시그니처 홀로
금호타이어 조형물이 장식된 17번홀에서
한·중국 주요 선수들이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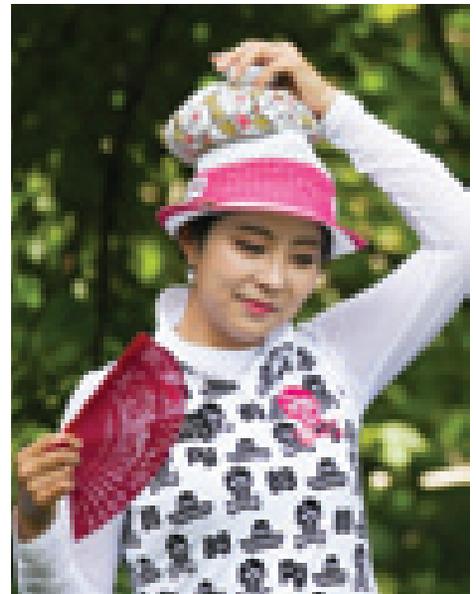
▶
장하나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초코우유를 입에 문 채 코스 바라보는 장하나

▶
김지현 |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이국적 배경의 12번홀에서 홀아웃하는 김지현



▶
김하늘 |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김하늘의 5번홀 티샷

▶
양수진 |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13번홀 티샷전얼음 주머니와 부채로
 폭염을 식히고 있는 양수진



▶
고진영 |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우승 확정 후 기뻐하는 고진영



KLPGA
MODEL

제7대 홍보모델

7

KLPGA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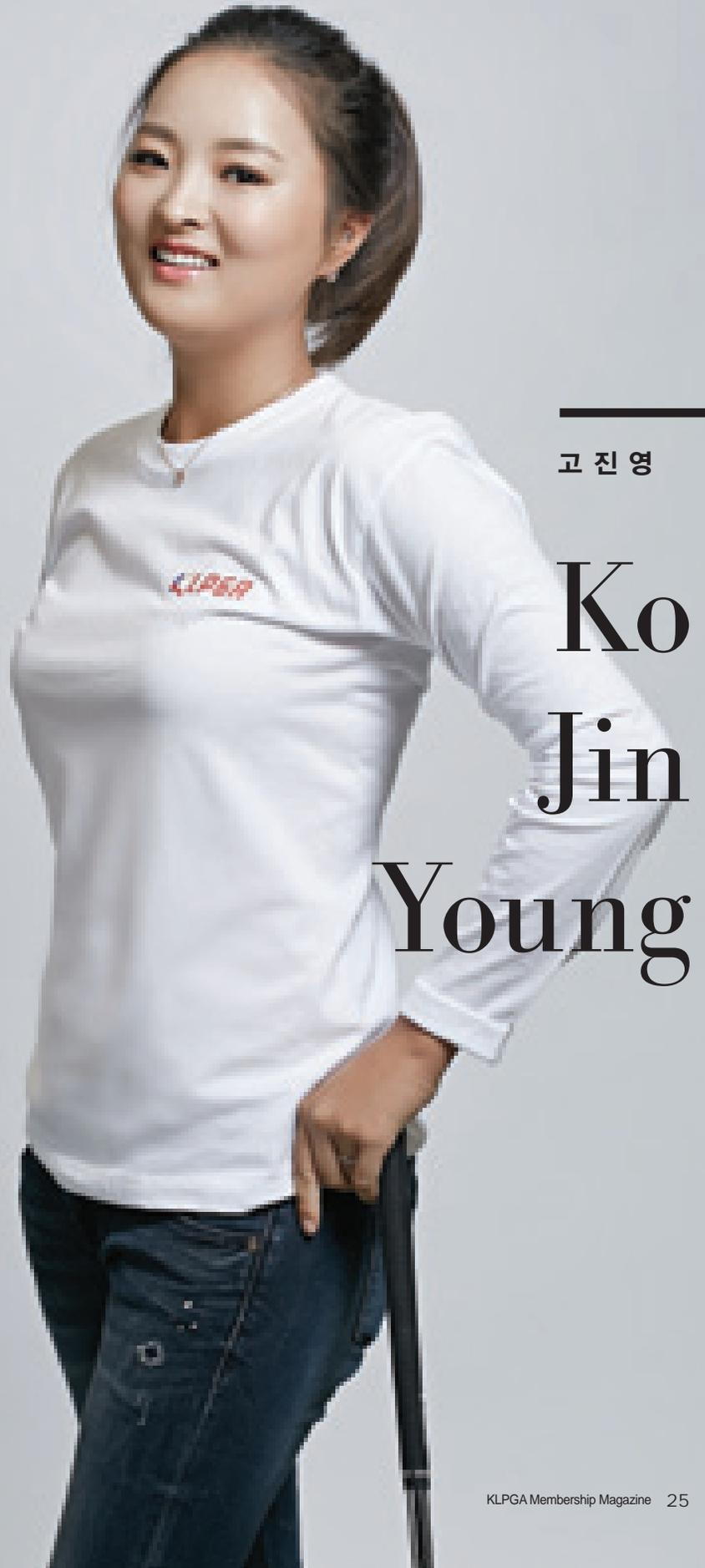
2015

제7대

KLPGA

홍보모델

제7대 KLPGA 홍보모델 10인의 촬영사진이 공개됐다.
홍보모델은 지난 시즌 KLPGA투어 상금순위 50위 이내 선수들(해외 투어 활동 선수 제외) 중 언론사, 타이틀 스폰서 관계자, KLPGA 회원의 투표로 선정됐다. 사진촬영은 골프웨어, 전통 한복, KLPGA 로고 티셔츠 등 3가지 콘셉트로 진행됐으며, 이는 KLPGA 홈페이지, 협회 매거진, 각종 제작물(캘린더, 연하장, 스크린세이버, 월페이퍼) 등 각종 홍보매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고진영

Ko
Jin
Young



김민선 5

Kim Min Sun5



김자영 2

Kim Char Young 2



Kim Hye Youn

김혜윤



Yang Soo Jin

양수진



Yoon
Chae Young

윤채영

Chun In Gee

전인지



Heo Yoon Kyung

허윤경



Hong

Ran

홍란

AROUND
C.C

어라운드 C.C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THE STAR HUE GOLF & RESORT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더스타휴 골프&리조트'는 가는 길마저도 정겹다.
 남한강 지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최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양평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자연과 어우러져 휴식과 같은,
 기분 좋은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은 울창한 자연림과 암석, 계곡 등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무릉도원에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만든다.
 8월, 'BOGNER-MBN 여자오픈'이 열리는
 '더스타휴 골프&리조트'를 소개한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자료협조 _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 Course •

명품 대회를 위한 천상의 코스관리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더스타휴 골프&리조트'에서 KLPGA투어 'BOGNER-MBN 여자오픈'이 열린다. 작년에 'MBN 여자오픈 with ONOFF'로 KLPGA와 인연이 된 '더스타휴 골프&리조트'는 자연과 어우러진 천상의 코스로 선수와 갤러리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다. '더스타휴 골프&리조트'는 이번에도 역시 명품 대회를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무더위에 행여나 잔디가 마르지 않도록 잔디 컨디션 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KLPGA 선수들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차원이 다른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미 코스 곳곳에서는 금계국과 능수화, 수국 등이 즐비하게 늘어져 선수들을 반길 준비를 마쳤다. 난이도 높은 코스로 선수들의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뜨거운 햇빛 아래 열띤 경쟁을 조금이나마 식혀줄 골프장의 지형이 선수들에게 위안을 준다. 산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의 지리적 조건으로 4~5도 가량 기온이 낮기 때문에 상쾌한 컨디션으로 플레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스타휴 골프&리조트'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서 또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자연의 정기가 스며든 풍수지리적 명당

'더스타휴 골프&리조트'는 최고의 회원을 뜻하는 '더스타(The Star)'와 휴식을 뜻하는 '휴(休)'가 만나 '최고의 회원에게 한 차원 다른, 진정한 휴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프라이빗 골프장이다. 특히 고송리 삼각산 아래 위치한 골프장은 풍수지리상 구복산란지형(龜伏產卵地形: 거북이 알을 낳는 형국에 용이 주위를 휘돌아 감싸고 안고 있는 형세)으로 모든 산의 기운이 충전된 축복받은 땅에 자리잡고 있다. 2013년 6월 개장해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골프다이제스트의 베스트 뉴코스에서 별 5개의 최고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 디자이너 송호가 설계를, 잭 니클라우스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톰 펙이 조형 시공을 맡아 코스의 자연미를 더했다. 대자연 속 삼림욕 코스로 조성했기 때문에 원시림 같은 산책로와 시야를 가득 메운 야생화는 라운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준다. 특히 HUE 코스 8번홀에 준비하게 서 있는 보리수 나무와 코스 이동 시에 보이는 작은 채소밭은 '더스타휴 골프&리조트'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소소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라운드를 하면서 보리수 열매와 토마토 등을 따먹을 수 있게 배려했고, 또한 이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 클럽하우스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더스타휴 골프&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 전체 홀을 독립시켰다는 점이다. 이로써 홀 사이에 간섭 없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며 라운드할 수 있게 했고, 각 홀마다 색다른 콘셉트를 가미하여 재미를 더했다. 주위의 산들이 겹겹이 코스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풍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 Course •

천혜의 자연 속에 녹아든 변화무쌍한 코스

'더스타후 골프&리조트'는 18홀(파72) 두 개의 코스로, 산과 계곡, 연못, 폭포, 벙커 등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여성적인 STAR 코스와 울창한 자연림과 자연스럽게 노출된 암석 등으로 모험을 요구하는 남성적인 HUE 코스로 이뤄져 있다. 모든 홀에서 티샷은 시원하게 하되 어프 로치에서는 정교한 샷을 시도하도록 그린 주변의 벙커 배치가 잘 짜여 있는데, 이는 '티샷은 호쾌하고 어프로치 샷은 정교하게'라는 설계자 송호의 설계철학이 녹아있는 것이다.

7개 홀에서 물이 골퍼의 기량을 가리는 주요한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STAR 코스는 신중한 플레이가 요구되지만 자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코스기도 하다. 특히 2번 홀은 가슴이 탁 트이는 내리막 도그렉 홀로 그린의 마치 하트 모양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4번홀은 넓은 호수와 암벽으로 아름다운 자연이 머물러 있는 시그니처 홀이다. 그러나 그린의 앞뒤로 벙커가 가로막고 있어 욕심을 내기 어려운 홀이기도 하며, 울창한 소나무 숲이 홀을 감싸고 있는 6번홀은 페어웨이 벙커와 언뜻 놓칠 수 있는 심한 언드레이션이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3번홀에서는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고, 9번홀에서는 웅장한 페어웨이를 향해 호쾌한 티샷이 가능한 마음씨 좋은 홀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HUE 코스는 STAR 코스보다 높은 난도를 요구해 정교한 코스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4번홀은 넓은 하늘을 배경으로 암석과 그린의 운치를 더하지만 계곡을 넘겨

야 하는 티샷에 앞바람이 만만찮아 볼이 낮게 날아가는 펀치 샷이 요구된다. 6번홀은 목표지점 좌측 능선이 페어웨이를 조형과 생동감 있게 연결돼 자연스러운 변화에 묘미를 더한 홀로 HUE 코스의 시그니처 홀이기도 하다. 특히 이 홀의 그린 앞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송약수터'가 있다. 아토피, 피부병 등에도 좋은 약수를 맛보고 다음 홀로 이동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진정한 휴식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더스타후 골프&리조트'는 원형 클럽하우스에서 두드러진다. 클럽하우스의 레스토랑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메인 홀을 최대한 축소하고 17개의 개별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고객의 동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로비와 연회장, 라커 룸 등을 다양한 스타일의 독립된 공간으로 설계해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했다. 특히 라커 룸은 개인 샤워실과 파우더 룸을 별도로 만들어 개인 공간의 이미지를 더했다.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골프장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와 장 등으로 만들어 회원들의 건강을 생각했다.

더불어 스타 1번홀의 페어웨이를 따라 조성되고 있는 국내 최고급 수준의 골프빌리지가 오는 11월 완공된다. 모든 빌리지에서 골프 코스를 조망할 수 있게 배치했으며, 풍부한 녹지를 확보해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순환형의 산책로와 포레스트 트레킹 코스는 라운드 후 휴식의 의미를 더해준다.



코스개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더스타후 골프&리조트는 풍수지리상 거북이 알을 낳는 지형으로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다. 수려한 숲 속에 탄생된 코스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전 홀이 독립적으로 배치됐다. 특히 코스 대부분이 산책로로 조성돼 있고, 피톤치드가 넘쳐나 건강한 휴식이 더해지는 산림욕까지 맛볼 수 있다. 전략이 요구되는 HUE 코스, 자연이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난 STAR 코스로 이뤄져 있다.

총 면적 _ 1,364,108㎡(412,643평)
코스면적 _ 18홀(스타, 후) 파72 / 7,211yd(6,594m)
코스길이 _ STAR Course 9홀 / 파36 / 3,645yd
HUE Course 9홀 / 파36 / 3,566yd

STAR Course

산과 계곡, 연못, 폭포, 벙커 등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여성적인 코스다. 특히 물이 골퍼의 기량을 가리는 주요한 핸디캡으로 작용하니 주의해야 한다.

HUE Course

울창한 자연림과 자연스럽게 노출된 암석, 계곡을 넘기는 샷 등 난이도 높은 남성적인 코스다. 신중한 코스전략이 필요하며 플레이어의 도전정신이 요구된다.



• *Travel* •
.....



물 위에 수줍게 피어난 연꽃들의 향연, 세미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위치한 '세미원'은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한강물을 보면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지'는 어원 그대로의 의미를 담아 세미원의 모든 길은 빨래판으로 조성돼 이목을 끈다. 특히 여름철 세미원은 연못에 가득히 핀 연꽃들로 절경을 이룬다. 다양한 모양으로 피어있는 연꽃들의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7, 8월에는 연꽃축제인 '연꽃문화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는 8월 16일까지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세미원 _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MINI INTERVIEW

대표이사 최인욱



지난 시즌 'MBN여자오픈 with ONOFF'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올시즌에도 KLPGA와 함께하게 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올해도 역시 'BOGNER-MBN 여자오픈'이 고품격 명품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8월에도 시원한 라운드가 될 것을 약속하며, 싱그러운 자연의 좋은 기운을 받아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심신이 힐링되는 천상의 코스에서 진정한 휴식을 즐기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PARK

Sung Hyun

나에게 골프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휴식]
이다

2015 시즌 첫 메이저대회 우승자,
박성현를 만나다

올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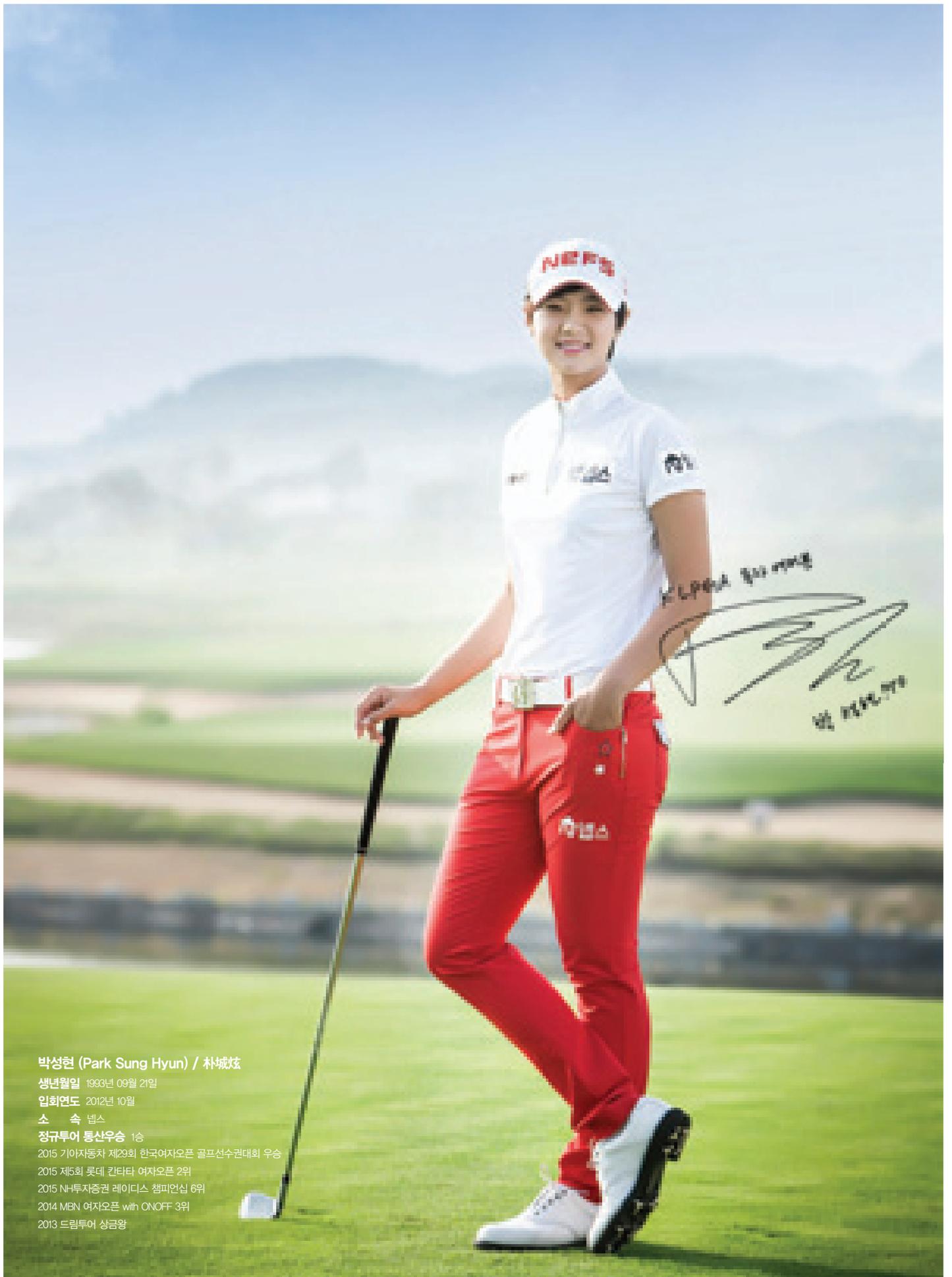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정규투어의 우승컵을 차지한 박성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린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차지했기에 감회도 남다를 것이다.

2013 시즌 드림투어 상금왕에서
생애 첫 정규투어 우승에 이르기까지,
그의 솔직담백한 투어생활을 공개한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촬영협조 _ 스카이72 골프클럽





박성현 (Park Sung Hyun) / 朴城炫

생년월일 1993년 09월 21일

입회연도 2012년 10월

소속 벨스

장규투어 통산우승 1승

2015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우승

2015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2위

201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6위

2014 MBN 여자오픈 with ONOFF 3위

2013 드림투어 상금왕



너무나 간절히 기다린 우승의 순간

그에게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패배의 아픔은 한편으로 약이 되었다. 최종라운드 18홀에서 그는 1미터 거리의 짧은 버디 퍼트를 실수하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었다. "어이없는 실수로 우승을 허무하게 놓쳐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실망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경기를 마친 그는 더욱 강해져 있었다. "좋은 경험이 되었고, 저 또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과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어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같은 조에서 멋진 승부를 거룬 이정민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정민 언니가 라운드를 나가기 전 저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긴장을 할수록 말수가 더 적어지고, 그럴수록 더 움츠러들기 마련이라고... 평소에도 워낙 말이 없는 편인데 경기 중에는 말을 아예 안하게 되더라고요. 문득 제 스스로가 긴장을 만든 것 같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 중에도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은 곧 우승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는 그에게 하나하나의 경험이 쌓여 마인드컨트롤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겼고, 우승보다는 자신의 플레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만들어졌다.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한 슬럼프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의 초등학교 골프대회를 모두 휩쓸고 다녔던 골프신동인 그에게 슬럼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어렸기 때문에 그 기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중학교 3학년 때 국가상비군으로 발탁됐지만 갑자기 찾아온 입스는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어린 나이에 슬럼프 기간이 매우 길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힘겹게 보냈어도 한 가지 생각만은 뚜렷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골프를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연습에만 몰두했고 매일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재미를 느꼈다. 그렇게 그는 지금의 박성현이 있기까지 차근히 단계를 밟아나갔다. 그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은 바로 성격이었다.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은 그를 소심하게 만들었다. 골프를 하면서 이런 성격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다른 선수들을 보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저 또한 그러고 싶은데 성격을 고치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는 연습보다도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이번 동계훈련을 갔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 이야기도 나누고 공을 같이 치기도 했으며 뿌듯하게 말하는 그다. "활발하고 자신감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
팬들이 ‘닥공’이란 말을 많이 하세요.
저의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장점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시원한 플레이어’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더위를 날려줄 그만의 시원한 플레이

“팬들이 ‘닥공(닥치고 공격)’이란 말을 많이 하세요. 저의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저만의 장점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시원한 플레이어’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시원한 그의 드라이버 샷은 한여름 무더위도 날려 줄 것만 같다. 완벽할 것만 같은 그에게도 보완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 “올시즌이 끝나기 전에 평균퍼팅을 50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현재 90위 밖에 있거든요.(웃음) 그만큼 쇼트게임에 연습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완해 나가고 싶어요.”

올시즌 그의 목표는 당연히 첫 우승이었다. “올시즌 초반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아보자’가 목표였어요. 상반기가 가기 전에 그 목표를 이뤄내 또 다른 목표를 세웠죠. 하반기 때도 우승의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우승을 하고 싶어요.” 쉬는 것보다 골프를 할 때 몸이 더 가볍다는 박성현. 그는 새로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매일 골프채를 잡고 연습에 몰두한다. 앞으로도 시원한 티 샷을 기대하며 시원하게 승승장구할 그의 행보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은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드림투어 7차전 우승자 박지연 인터뷰

지난 6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7차전'에서 박지연이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다.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던 우승이기에 그 역시 우승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KLPGA members>와의 만남 이후, 박지연은 드림투어 10차전에서 또 한 번 우승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할 그녀에게서 골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촬영협조 _ 영재 Par3 골프랜드

박지연
KLPGA 7차전
첫 번 우승!

박지연 (Park Ji Yeon) / 朴池蓮
생년월일 1995년 01월 25일
입회연도 2013년 11월
드림투어 통산우승 2승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0차전 우승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7차전 우승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8차전 4위
 KLPGA 2014 무안CC·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7차전 6위
 KLPGA 2013 YES·군산CC컵 점프투어 16차전 3위
 KLPGA 2013 YES·군산CC컵 점프투어 14차전 2위

꿈꾸기만 했던 생애 첫 우승

이번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7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은 박지연. "우승하는 순간 가족들, 아카데미 원장님,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의 얼굴이 차례대로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어요. 너무도 기다리며 꿈꿨던 우승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뻐요." 공동 5위로 최종라운드에 오른 그는 후반 차분하게 파 행진을 이어가며 1타차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18번홀에서 보기를 범하는 바람에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다. "이날 전체적으로 기복이 심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우승보다는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침착하게 플레이에 임했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가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는 두 달여 전 함께 하게 된 골프아카데미와의 인연이 우승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을 더했다. "혼자서 연습할 때는 전혀 우승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연습량이 많아 힘들기도 하지만 발전하는 제 모습이 보이니 기분이 좋아요. William Z.Symnegh 원장님, 유현재 프로님, 배성호 프로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우승까지 꿈꾸게 됐어요."

원동력이 되어준 가족, 그 행복을 가져다 준 골프

박지연은 5살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골프채를 움켜잡았다. "IMF 때 아버지께서 박세리 프로님의 우승 기사를 신문에 보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하세요. 이후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갔다. "골프를 시작하고 저에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국가상비군으로 발탁되었던 일, KLPGA 정회원이 되었던 일, 이번 우승의 순간까지... 특히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까지. 가족은 그가 골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오랫동안 한 가지에 몰두하여 꾸준히 하는 것, 그가 꿈은 자신의 강점이다. "어렸을 때도 오래달리기와 같이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것을 즐겨요. 즐기다보면 또 다른 재미를 찾게 되는 매력이 있거든요." 골프 또한 그에게 그랬을 것이다. 오랜 시간 프로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위한 노력

아직 그에게는 기술적으로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드라이버 샷의 거리와 그린 적중률 부분은 자신 있지만, 어프로치 샷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앞으로 꾸준히 연습해서 보완해 나갈 부분인 것 같아요. 연습시간 중에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더불어 그는 이정민의 플레이를 닮고 싶다고 말한다. 완벽한 스윙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회에 임하는 자세 또한 배워야 할 점이라 덧붙였다.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공만 잘 치는 선수가 아닌, 성격과 매너가 좋다고 인정받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드림투어 상금랭킹이 오르다보니 욕심이 생겨 올시즌에 꼭 정규투어 시드권을 획득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박지연. 앞으로도 더욱 멋진 선수가 되길 기대해 본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 즐기는 라운드

프로암(Pro-Am)대회의 모든 것



Amateur



Professional

프로암은 'Professional And Amateur'의 약자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 조를 이뤄 라운드 하는 것을 프로암대회라 한다. 대회를 통해 아마추어는 프로와 함께 동반 라운드의 기회를 얻고, 프로는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라운드, 프로암대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_ 김소현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라운드
프로암

프로암대회는 본 대회를 앞두고 스폰서가 초청한 VIP 인사들과 선수들이 함께 어울려 라운드를 진행하는 이벤트다. 대회 스폰서들은 이를 통해 대회 개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며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회를 여는 타이틀 스폰서의 마케팅이 활발해야 대회의 규모가 커지고, 이는 더 많은 대회를 창설하는 계기가 되므로 프로암대회는 선수와 스폰서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리다.

KLPGA는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프로암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공식연습일-프로암-본 대회'의 순으로 진행되던 투어를 '프로암-공식연습일-본 대회'로 순서를 변경해, 선수들이 본 대회에 앞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로 인해 스폰서와 선수 모두 대회에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프로암대회는 선수와 스폰서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투어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는다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KLPGA는 원활한 프로암대회 운영을 통해 투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 프로암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전인지는 프로암대회에 대해 “이렇게나마 대회를 열어준 스폰서에 대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했고, 박성현 또한 “프로암대회를 통해 대회스폰서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며 긍정적으로 말했다.

우선 프로암대회는 대회를 개최해준 스폰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나의 대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타이틀스폰서를 비롯한 많은 후원사들의 공이 들어간다. 정규투어의 대회 수가 증가할수록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의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암 대회는 선수들이 대회를 열어준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중요한 지리가 된다.

더불어 프로암대회를 통해 대회 스폰서 VIP 인사들과 새로운 인맥을 쌓을 수도 있다. 함께 라운드를 한 인연이 나중에 어떤 도움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개인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KPGA투어의 새로운 대회 타이틀스폰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선수들도 매너있는 라운드를 통해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 번의 좋은 기억이 나비효과처럼 크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회 전, 코스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프로암대회 코스는 본 대회 코스와 동일하게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플레이와 코스, 전체적인 라운드를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물론, 프로암대회가 자신의 연습시간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함께 라운드하는 VIP 인사들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만큼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프로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암대회는 1930년대 중반 미국의 유명 가수인 빙 크로스비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로스앤젤레스 레이크사이드 골프 클럽에 입회한 빙 크로스비는 클럽 멤버들과 낮은 핸디캡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50~60명의 프로선수들과 겨울 동안 골프를 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것이 정례화 되면서 프로암대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US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은 1947년부터 공식적인 대회가 되었고, 연예인이나 기업대표 등 사회적 명망이 있는 유명인사들이 함께해서 골프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4라운드로 치러지는 이 대회의 경기방식은 먼저 3라운드를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 조를 이뤄 3개의 코스에서 경기를 펼친다. 아마추어의 점수에는 핸디캡이 적용되어 팀별로 성적이 합산이 되고, 3라운드 이후에는 프로선수 상위 60명이 우승컵을 놓고 최종라운드를 겨룬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프로선수에게 필적할 만한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들이 골프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다. 157cm의 단신이지만 스크래치 플레이어(핸디캡 0)로 세미프로에 가까운 골프 실력을 선보여 2001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화배우 앤디 가르시아, 기타리스트 제리 창 등 아마추어가 프로선수와 함께 경기를 치르는 모습은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었다. 그리하여 USPGA는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을 정규투어에 포함시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프로암대회 경기방식으로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프로암대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프로선수와 함께 라운드를 한다는 의미는 같다. 프로암대회가 공식 정규투어에 포함돼 운영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마추어들과 골프팬들에게 큰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프로암대회는 아마추어들에게 프로선수와 함께 동반 라운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꿈의 라운드가 되어 주기도 한다.

프로암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

PGA의
정규투어가 된
프로암대회



프로암대회와
함께하는
뜻 깊은
이벤트

프로암대회는 단순한 대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장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제5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프로암대회에서는 인기 프로선수들의 애장품 경매 이벤트가 열렸다. 이날 선수들은 자신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애장품을 내놓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열띤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매년 진행되는 프로암대회 애장품 경매 이벤트는 자선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선수와 참가자 모두 뜻을 더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는 지난 디펜딩 챔피언 이승현이 우승 순간을 함께 한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6명의 선수들의 골프용품이 경매에 붙여졌고, 최고가로 김자영2의 3번 우드가 50만 원에 낙찰되었다. 김자영2는 "애장품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쓰인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처럼 진행되는 이벤트는 의미 있는 프로암대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BMW Ladies Championship 2015'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프로선수와 함께 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목을 끌었다. 사전에 프로암대회에 참가할 일반인 아마추어를 모집하기 위해 SNS를 통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1차 당첨자 50명을 발표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종 6명을 선발하여 프로암대회에 참여하게 했다. 프로암대회에 VIP 인사들이 아닌 일반 아마추어에게 이벤트를 통해 참여의 기회를 줌으로 많은 골프팬에게 관심을 끈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프로암대회를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대회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프로선수와 함께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깊은 자리다.



프로암대회를 참가하는 모두가 즐거운 라운드가 되기 위해선, 서로 뜻 깊은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특별한 인연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정착돼야 할 것이다.

삶에 풍요와 편리를 더하는 아름다운 미래창조

ISU
이수그룹

Challenge the Future Share the Future

이수그룹은 1969년 이수화학 설립 이후 화학, IT, 건설, 투자, 바이오, F&B 등 사업의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명실공히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수그룹은 각 사업분야마다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제일, 세계 유일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수그룹은 삶에 풍요와 편리를 더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일에 정성을 다하는 기업, 고객 가치 창조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기업, 이수그룹이 함께 합니다.

자료 제공 _ 이수그룹





화학

고품질의 화학 소재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안정적인 생산 능력,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 활동까지 이수는 화학사업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고품질 소재를 공급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화학산업의 진화, 이수가 앞서 이끌어갈 것입니다.



IT

IT 산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첨단 제품을 공급합니다

이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PCB를 생산하여 국내외 유수의 IT 기업에 공급합니다. 고성능·고집적·고효율의 PCB는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적의 부품으로 실현하는 IT산업의 성공, 이수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설 & 엔지니어링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건설을 창조합니다

이수는 토목·SOC,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 등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활약하며 공간의 효율과 가치를 높여줍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공간, 이수가 새롭게 창조해가겠습니다.



문화 & 투자

전략적인 투자로 문화와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이수는 문화콘텐츠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차별화된 투자 전략,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업계 전반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투자, 이수가 명쾌하게 제안하겠습니다.



바이오 & 제약

우수한 의약품으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줍니다

이수는 생명존중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진출하여 희귀의약품 개발에 주력합니다. 앞선 항체기술을 기반으로 희귀병 치료제를 연이어 출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명사랑의 소중한 가치, 이수가 성실히 지켜가겠습니다.



F&B

한국의 맛을 세계로 전하며 즐거운 감동을 나눕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처럼 일상의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이수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한식의 맛과 멋을 전하며 그 행복을 더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일상의 행복, 이수가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Hero in History



이오순

〈히어로인 히스토리〉에서는 'KLPGA를 빛낸 30인'을 회원번호 순으로 만나고 있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회원번호 56번의 이오순 프로다.

92년 제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93년 제1회 동일레나운 레이디스 클래식, 94년 제5회 서울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95년 대우자동차컵 매일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97년 제6회 한주엘레세 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통산 5번의 우승을 일궈낸 이오순 프로.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낸 우승컵이지만, 그는 단지 시대의 운이 좋았다고 겸손히 말한다. 현재 시니어투어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의 골프인생을 들어본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구르는 돌은 아까가 끼지 않는다

LEE O H S O O N

피나는 노력 끝에 휩쓴 다섯 번의 우승

국내대회 통산 5번의 우승컵을 거머쥐며 3년 연속 상금왕과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던 이오순 프로. 그 시절 추억의 문을 열자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듯했다.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는 프로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메이저대회라 그때의 우승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더불어 서울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의 우승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이 대회가 개최된 후 첫 한국인 우승이었거든요.” 이오순 프로가 참가했던 ‘제5회 서울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는 만약 한국 선수의 우승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회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었다. 당시 약 9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회 중에서 하나의 대회가 무산되면 선수로서도 큰 손해였다. “대회를 지키기 위해 ‘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승하자’라는 마음으로 플레이에 집중했어요. 다행히 제가 우승해 대회는 다음해에도 개최되었고, 이후 구옥희 프로님과 박세리 프로가 우승하기도 했죠.”

그를 우승으로 이끈 승부사 기질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어렸을 적 골프가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늦은 나이인 26세에 골프를 시작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연습만 했었어요. 골프를 시작하고 5년 동안은 하루도 쉬지않고 골프채를 잡았죠. 연습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며칠 동안 지인들과 연락이 두절됐던 일이 허다했어요.”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어느 새 프로가 되어 있었고, 90년대 국내투어를 휩쓴 주인공이 되었다.

곰국처럼 진하게 고아진 동료들 간의 우정

동료와 함께해 더욱 즐거웠던 추억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이오순 프로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제5회 서울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의 최종라운드 때가 기억이 나요. 저와 정길자 프로님, 팻브리들리와 함께 라운드를 했는데, 시작 전에 티잉그라운드에서 바람소리를 내면서 빈스윙을 계속 했었어요. ‘동양인도 강하다.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란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이었죠.” 한국 선수들끼리 힘을 내기 위해 우죽을 가져다 곰탕을 끓여먹기도 했다고. “당시 숙소가 한화콘도였기에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선수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곰탕을 끓여 3~4일 동안 나눠먹었죠. 저쪽은 햄버거 먹고 힘을 낸다는데 우리도 질 수 없잖아요.”

이 시절 투어 때는 선수들끼리 웅기중기 모여앉아 밑반찬을 나눠먹는 등 함께 어울려 식사를 했다고 한다. 대회 이동시에는 작은 경차에 예닐곱 명이 움츠려 타기도 했다.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끈끈한 정이 있었죠. 그 때 함께 투어 생활하던 동료들과 아직까지도 만나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죠.” 함께였기에 더욱 행복했던 그 시절. 아마도 그는 우승의 순간보다도 동료와 함께한 시간을 더 소중히 기억하는 듯했다.

자연과 싸워 이기려면 정말 게을러지면 안 된다

LEE O H S O O N

오랜 투어생활의 노하우

이오순 프로는 시니어투어 선수생활을 하며 주니어 육성을 위한 레슨을 병행하고 있다. 오랜 투어 생활이 지칠 법도 하지만 그의 골프에 대한 열정은 식을 새가 없다. “골프는 자연과 겨루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나의 몸동작과 움직임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코스의 준비가 없으면 냉정한 결과가 따르는 게 골프죠. 중간에 경기가 풀리지 않는 것도 스스로 압박하면서 만들어 낸 긴장이기 때문에 연습하라는 채찍이죠. 하지만 자신감을 표출하면 즐길 수 있는 것이 골프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연습벌레’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그는 아직까지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매일 아침, 오전 4시가 되면 기상하여 등산 또는 여러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투어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본인의 체력을 파악하여 가꾸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는 체력유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올바른 마음가짐과 매너를 갖춰 겸손한 자세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랜 시간 투어생활을 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KLPGA

“최근 골프 꿈나무들이 언더파로 라운드를 마무리 하는 것을 보고 내심 설레었습니다. 현재 세계최고 실력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KLPGA의 미래를 보는 듯 했죠. 그만큼 협회와 회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몇몇의 선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KLPGA의 회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골프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는 앞으로 미래의 KLPGA를 이끌어 나갈 주니어 육성에 더욱 힘을 계획이다. 기회가 되면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해 가능성 있는 많은 주니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단다. 머지않아 그를 통해 훌륭한 프로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선후배가 만나서 공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게 되고, 이는 협회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훌륭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의 활약으로 앞으로의 KLPGA가 더욱 기대된다는 이오순 프로. 세계투어로 성장한 KLPGA가 끊임없는 선후배간의 소통으로 더욱 단단하고 끈끈해지길 바라는 그다.



골프는 자연과 겨루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나의 몸동작과 움직임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코스의 준비가 없으면 냉정한 결과가 따르는 게 골프죠.





선후배가 만나서 공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게 되고,
이는 협회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나에게 뜻도는 삶이다.

솔병원 과 함께하는 건강한 골프

골퍼를 위한 골프 피트니스

글 _ 나영무(솔병원 원장) 자료 제공 _ 솔병원(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솔병원은 KLPGA 공식지정병원으로서 KLPGA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각 투어 별 전 대회)에 전담 의무팀(앰블런스 1대, 간호사 1명, 트레이너 1명)을 파견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대회 기간 동안 부상 예방 및 처치를 위한 기본적인 Medical Service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정규투어 메이저대회에는 전문의 1명과 의료장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한다.



골프 라운드를 하는데 있어서 프로 선수 혹은 아마추어도 그날의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좋은 스코어를 유지하는 골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연습을 통해 기술을 향상, 유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좋은 컨디션 유지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컨디션유지의 올바른 방법으로는 라운드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아픈 곳이 없어야 합니다.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아픈 곳이 있으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아픈 곳이 없어도 체력이 약해 힘들면 기량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체력이 좋은 것과 아프지 않은 것 중 무엇이 더 먼저일까요? 첫 번째로 몸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평상시 좋은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아픈 곳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체력향상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력을 향상시킬까요? 우리가 내 몸에 맞게 옷을 맞출 때 피팅한다고 합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퍼를 하는데 필요하게 피팅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골프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골퍼들이 필라테스, 헬스, 요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 피트니스를 하는데 꼭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초체력과 통증입니다. 골프 피트니스를 통한 체력향상의 가장 큰 목적은 **기능의 향상과 부상예방**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력에는 **기초체력과 기능체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체력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체력(근력,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등)을 의미하며 이는 운동

을 우리가 원하는데로 할 수 있기 위함과 부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골퍼 기술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그립부터 스탠스, 스윙자세를 잘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능체력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스윙이 잘 만들어지면 드라이버, 칩샷, 벙커 등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는 스윙이 필요하듯이 골퍼의 특성에 맞게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거리 향상, 피로회복 등 골퍼 라운드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프로도 여러 기술을 연습하지만 기본적인 스윙 연습을 하고 레슨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주듯이 몸도 나이, 환경, 영양 등 여러 요인으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렇기에 기초체력과 기능체력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해야합니다. 많은 골퍼들이 실력향상을 위해 기능체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골퍼에 필요한 기능체력 향상을 통해 비거리를 늘리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능체력만 늘리고 나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부상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향상시키다보니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물론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이에 성공적인 골프 피트니스는 현명한 골퍼라면 13~14개의 골퍼체를 모두 사용하여 라운드 하듯이 운동하기 위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기초체력과 기능체력 모두를 적절하게 향상시켜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통증있는 부위는 통증치료를 우선 해주어야 합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체력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이 오히려 몸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 골퍼를 위한 올바른 골프 피트니스 원칙

- ① 자세를 똑바로 하는 습관을 들이자
- ②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자
- ③ 자신의 기초체력을 알자
- ④ 근력을 향상시키자
- ⑤ 균형감각을 점검하자
- ⑥ 근육의 밸런스를 유지하자
- ⑦ 피로를 이겨내자
- ⑧ 통증을 조절하자
- ⑨ 잘 먹고 잘 쉬자



*b KB 국민은행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 투자법 I

홍선호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징이 있다. 생긴 게 다르니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환금성은 낮지만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가 있다. 소형 아파트는 임대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언제든 빠르게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금액은 크지만 잘만 고르면 임대수익과 자본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 상가나 빌딩이다. 연 10% 이상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지 알 수 없는 분양형 호텔도 있다. 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많다. 우선 금리 상승에 대비해 투자금 대비 대출비중을 30% 이내로 줄일 것, 공실 리스크는 항상 유의할 것, 수익률 뺏기기 광고를 주의할 것, 임대수익률 연 5% 이상이 되는 부동산에 선별 투자할 것 등은 항상 유념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8, 9월호에서는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 투자법'에 관해 알아본다.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 투자법

저금리시대가 계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상가, 빌딩 시장에 큰 손들의 발길이 찾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가나 오피스텔 열기는 금리인하에 노후불안까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인구구조적으로 초저금리시대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도 구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베이비부머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 경기 침체로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임대소득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도 가세했을 것이다. 이미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리 진행된 유럽에서는 주택보다 상가에 관심이 많다. 임대수익을 노리고 개인끼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사설 상가펀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도 한번 오피스텔 사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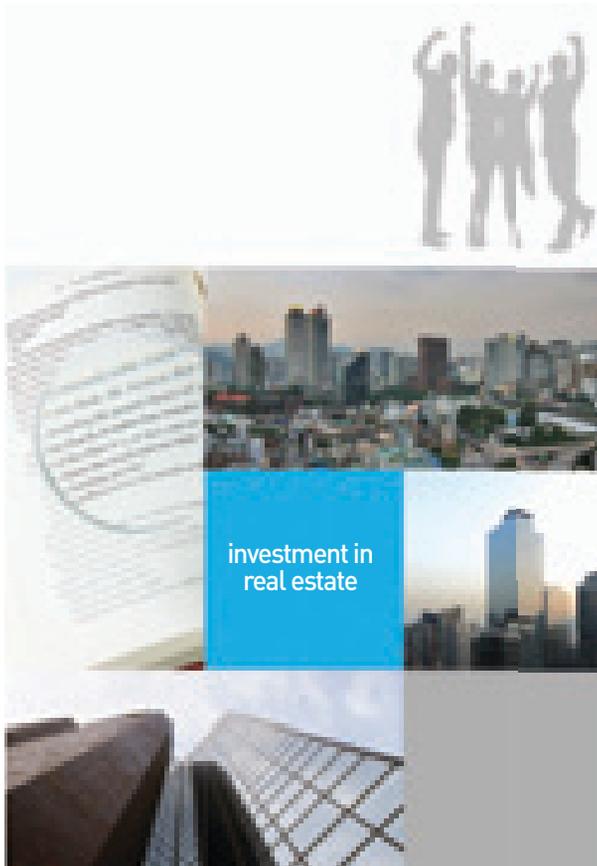
흔히 수익형부동산 하면 오피스텔을 떠올릴 만큼 오피스텔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오피스텔은 최근 2룸, 3룸도 일부 분양되고 있지만 대부분 원룸형태로 되어 있으며 1인가구 신혼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대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오피스텔을 많이 찾는다.

특히 대학생들은 예전에는 하숙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혼자 생활하기 편하고 보안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오피스텔이 매력적일까. 모든 부동산 상품이 그렇듯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입지(역세권)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이내로 가까운 오피스텔이 인기가 높다. 그리고 주변에 대기업들이 있어 임대수요를 받쳐주거나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이 중요하고 대기업 브랜드 오피스텔은 좀 더 가치가 높다. 임대수익률은 오피스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다. 그렇다면 수익률 계산법을 알아보자. 보증금 1천만 원, 임대료 월 60만 원, 구입가격 1억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단순계산(취득세 등 기타비용 제외)하면,

수익률 = [월임대료 X 12 / (구입가격-보증금)] X 100 산식에서
 [60만 원 X 12 / (1억5천만 원-1천만 원)] X 100 = 5.14% 로
 연 5.1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새 오피스텔을 분양 받는 것과 기존 오피스텔을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을까? 요즘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분양가가 예전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예전에 공급되었던 오피스텔은 대부분 전용률이 50%대를 넘었는데 요즘은 40%대로 떨어지면서 같은 면적이지만 전용률을 감안할 때 평당가격은 높다. 하지만 요즘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역세권이나, 편의시설이 좋은 곳에 많이 분양되는 만큼 공실 위험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존 오피스텔은 신규 분양되는 오피스텔보다는 다소 낡았지만 임대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신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많아 다소 과잉공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공급이 적정하기를 고려해야 하며, 아파트와 달리 시세차익을 얻기 어렵고 환금성도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보다는 수익률 낮지만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던 주택시장은 중대형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에코세대가 주도하는 요즘 주택시장은 소형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출생률이 낮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1인가구나 신혼가구의 증가로 가구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에코세대는 집을 투자하기보다는 거주수단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아파트 투자보다는 자동차 구입이나 여행 등에 돈을 더 쓰고 싶어한다. 하지만 전세난이 가중되고 월세부담이 커지자 요즘 젊은 층들도 집을 사고 있다. 구매력이 탄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사는 것이므로, 소형 아파트시장이 오름세를 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택구매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는 4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덩달아 기존 시장에도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기존 매매가격도 큰 폭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청약당첨이 되면 몇 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데 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는 물론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까지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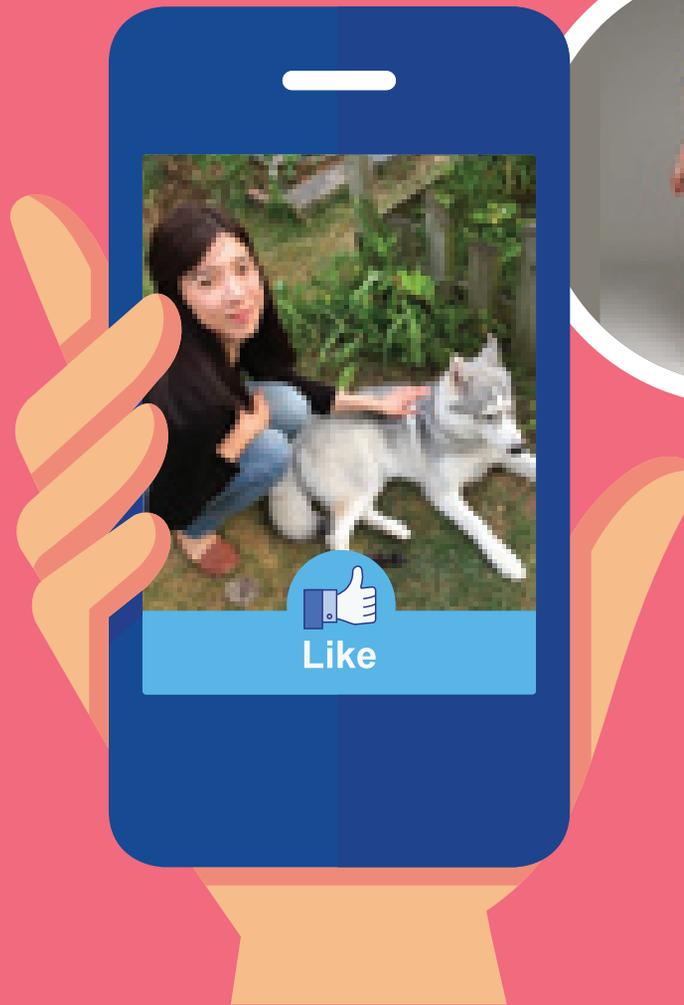
2015년 3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2만9천 호로 2014년 4만 호 대비 1만천 호가 감소했다. 이는 전국 미분양주택의 장기평균 6만 호 수준에 크게 밀도는 수준으로 아파트 시장의 활황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주택 인허가 실적이나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공급과잉을 걱정할 만큼 급증하고 있다. 이들 주택이 입주하는 3~4년 뒤에는 공급과잉으로 주택시장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 매매시장은 주택시장 순환국면으로 보았을 때 2015년 1분기 '회복'을 지나 '확장' 국면으로 진입해 당분간은 아파트 시장이 호조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순환하는 만큼 침체기에 접어들면 많은 대출을 내서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

아파트 임대수익률은 대체로 연 2~3% 정도다. 오피스텔에 비해 2~3% 포인트 낮은 편이다. 다만 아파트는 오피스텔에 비해 환금성이 좋아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시장 흐름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 투자법 II'가 9월호에 이어집니다

KLPGA 정현우 프로(회원번호 00573)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나의 일상 나의 관심사, 소통의 도구 SNS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협회지에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KLPGA 협회지 'KLPGA members'에 실어드립니다!

주말 나들이, 취미 생활, 투어 뒷이야기,
나만의 건강관리 팁 등 소소한 일상부터 혼자 떠난
여행, 가족 행사, 생일파티 등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까지 회원들과 나누어 보세요. 서로 몰랐던
일상을 공유하며 회원들끼리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은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의
자유주제 글과 관련 사진을 kl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꾸며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업로드한다.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있으면 화가 났다고, 때로는 나의 망가지는 모습을 타
인에게 보여준다. SNS중독이나 의무적 일로 SNS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 바쁠 때는 하지 못한다. 1년 365
일 24시간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SNS상의 내가 늘 좋아 보이는 이유는 나는 일상 매순간을 긍정
적이고 행복하게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나의관심사 # 불독 # 반려견

올해 초 총동적으로 잉글리쉬불독을 입양했다. 이름은 코를 많이 골아서 '코코'다. 이전에 반려견을 키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요즘은 동영상까지 찾아보며 강아지에 대해 열심히 공부중이다. 나는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코코에 대해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중 하나는 나같이 총동적으로 반려견을 입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입양 결
정을 할때에도 단지 내가 외로워서, 주위에서 키우는 것이 보기 좋아서 입양 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애견샵이 아닌 가정견을 분양받아야 하며, 가장 현명한 방
법은 유기견보호소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유
기견들도 많기에, 분양하기까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만 한다.
나도 초보 애견인으로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며 코코에게 더욱 사랑과 관심을 주며 보살피려고 한다.



최근나의관심사2 # 부울경 # 여자프로골퍼

소통 # SNS

올해 초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에 임용이 되어 거주지를 서울에서 김해로 옮겼다. 부울경 여자프로골퍼 간의 정보도 공유하고 주기적인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기적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돕자는 취지로서 지난 4월부터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모임은 두 달에 한 번 친목라운딩을 하고 야유회와 경조사 참석 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가한다. 그중 3명의 멤버들은 내가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 강의에서 프로골퍼 및 자문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내가 대학에서 어렵지 않게 적응하고 있는데, 이는 옆에서 든든히 도와주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KLPGA 선·후배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다.

우리는 모임 진행 중이나 끝나고 서로의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 바쁘다. 업로드가 끝나자 즉시 다른 지역 프로들의 부러운 반응과 참석하지 못한 멤버들의 아쉬운 반응이 빠르게 돌아온다.

서로 안지 오래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돈독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더더욱 경상도 특유의 적극성과 협동성 때문인지 현재 우리의 모임은 아주 뜨겁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가 남인교?”

최근나의관심사3 # 등산 # 가족 # 부모님

삶의원동력 # 다이어트

내가 정회원이 되고 투어에 처음 참가하던 해에 아버지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오랜시간 계셨다. 내가 시합에 집중을 못할까봐 어머니는 나에게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으신 것도, 중환자실에 계셨던 사실조차도 비밀로 하셔서 한참이 지나서 알았다. 뒤늦게 알고서 충격이 매우 컸지만 그 계기로 인

해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버지는 지금 운동을 통해 건강을 다시 찾으셨다.

시합 때는 늘 나의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지금은 내 판단을 지지해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현재 투어를 뛰는 선수들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골프선수를 자녀로 두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을 응원하고 존경을 표하고 싶다.

나는 투어를 나갈 때보다 현재 20kg가까이 살이 빠졌다. ‘빠졌다’라기 보다는 노력으로 뺐다. 내가 투어 될 때 보다가 최근에 본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는 사람보다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다.

사실 나는 투어생활을 할 때도 살을 빼고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다. 하지만 운동선수, 특히 골프선수의 경기력은 체지방률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함부로 마음대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재미있고, 예뻐졌다는 칭찬을 들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 든다. 내가 살이 빠지고 예뻐졌다는 소리는 나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신다. 요즘은 부모님과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지키며 다이어트까지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나의골프 # KLPGA # 완벽주의자 #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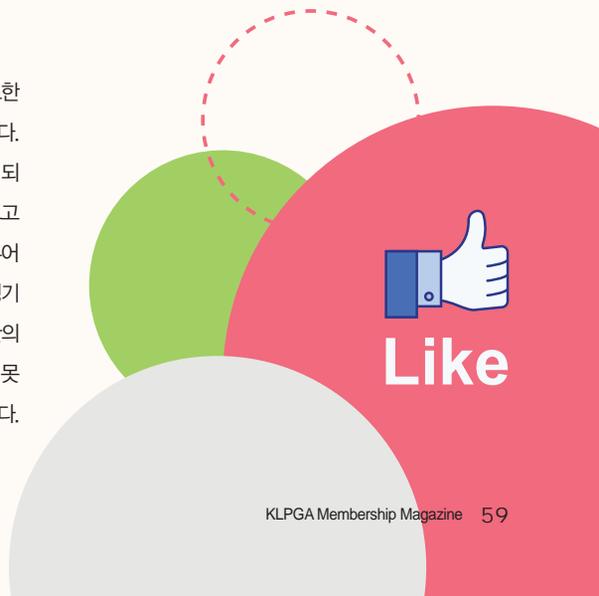
골프선수를 꿈꾸는 주니어라면 누구나 그렇듯 나 또한 세계제패를 꿈꾸며 중학교 3학년에 골프를 시작했다. 대학 진학 전에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었고 정회원이 되던 그 해에 바로 1부 투어 시드권을 받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슬럼프와 부상이 따랐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 투어의 현실은 화려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는 시합의 경기 결과에서 성적이 좋든, 좋지 않든 시합 중 나온 약간의 실수도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내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한 완벽주의 성향이 투어를 길게 이어가기 힘들게 했다.

한동안은 골프채를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다. 하지만 배운 게 골프라 연습장에서 아마추어 레슨을 해봤지만 그것 또한 완벽을 추구하는 내 성향과 맞지 않았고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내가 그만두던 시기에 같은 지역에 있던 주니어선수를 알게 되었고 일거수일투족을 같이하며 훈련했다. 나를 잘 따르고 운동신경도 좋았던 주니어선수는 짧은 기간 동안 실력이 빨리 향상 되었다. 지도하는 선수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선수로 몸소 느낀 경험만으로서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 선수가 더 나은 선생님께서 배우길 바라며 선수와 작별을 했다. 나는 선수를 내 경험만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코칭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을 선택했다.

소소한일상 # 소통하는도구 # 일상의일기장

나는 SNS를 늦게 시작했다. ‘내 삶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내가 SNS를 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 내 일상을 보며 한심해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나 또한 모르는 누군가의 삶이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좋은 정보를 얻은 적도 있다. 다른 사람의 일상을 자주 보다 보니 직접 얼굴을 한번도 만나본적 없는 사람에게도 친근함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팬이 되기도 했다. 문득 나에게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나 자신을 표현하지 않거나 내가 하는 일을 숨기는 것은 매우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 만큼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생각을 많이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프로골퍼가 아닌 평범한 여자사람으로서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일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다. SNS는 친구들, 그리고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도구이며 내 일상을 정리하는 일기장이다.





글 _ 김윤성(KLPGA명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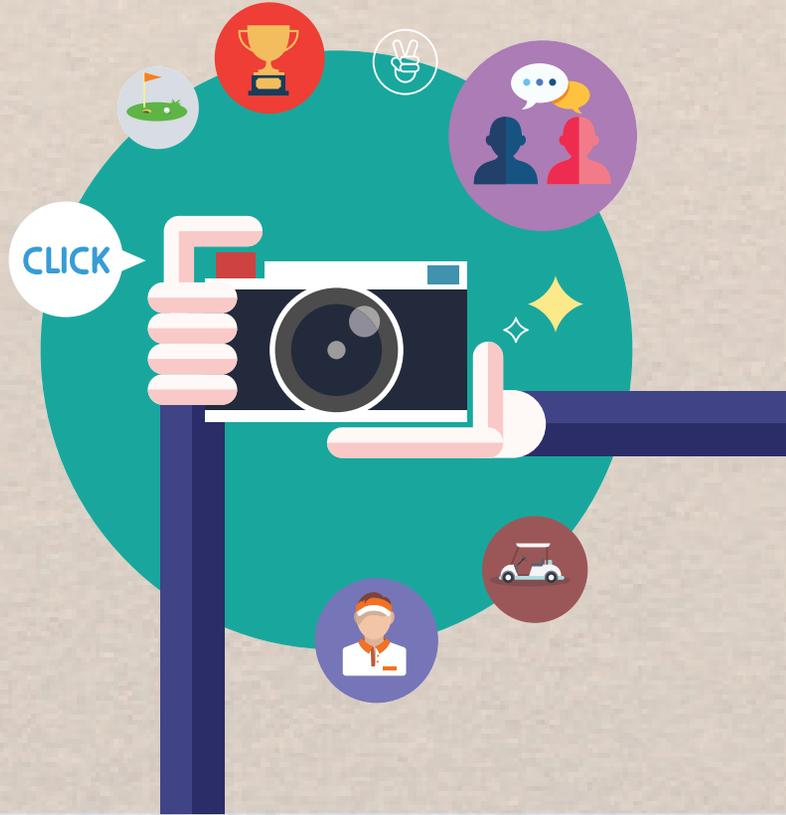
KLPGA블로그와 포스트에서는 1부 투어 진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KLPGA 2015 드림투어' 우승 선수들의 인터뷰를 릴레이로 연재합니다. 올해 드림투어는 지난 4월부터 군산CC, 휘닉스파크CC, 센추리21CC, 무안CC에서 각 5차전씩 20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6년 정규투어에 진출할 루키들을 이 코너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태그인터뷰

KLPGA 드림투어 4차전 우승, 이은정 선수

이번 태그 인터뷰 주인공은 지난 5월 7일 'KLPGA 2015 이동수스포츠 · 군산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4차전에서 우승한 이은정(27) 선수입니다. 이은정 선수는 이날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69-68)를 기록해, 공동선두에 오른 이슬라(25.대방건설) 선수와 연장접전 끝에 드림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드림투어 해설을 맡고 있는 KLPGA 김경자 전무는 "이은정 선수는 세 번 우승을 모두 연장전에서 우승했을 만큼 기본기가 탄탄하다. 무릎 수술 후 슬럼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우승을 계기로 지난 모든 어려움 털어버리고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원밸리CC연습장에서 이은정 선수와 코치를 맡고 있는 최규진(YMCA 골프단) 프로를 만났습니다. 인터뷰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이은정 선수의 말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은정 #윤채영, 함영애 #최규진 프로 #4차전 우승

"이번 4차전 우승으로 오랜 슬럼프를 극복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항상 연장에서 우승해서 많이 떨렸지만 우승할거라 생각했어요. 특히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도해주고 계시는 최규진 프로님께 감사드려요. 현재 1부(정규)투어에서 뛰고 있는 윤채영, 함영애 선수와 친한데, 4차전 우승하고 그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 그 나이에 우승하기 힘든 거다. 어린 후배들 기에 놀려서 어떻게 우승 했냐며 놀리더라고요. 올해 목표요? 내년 정규투어에 진출해서 친구들과 함께 시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승도 하고 싶죠. 그러려면 드림투어에서 최소 3승은 해야 안전하게 시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미국투어에서 활동했던 경험 때문에 굴리는 샷보다 띄우는 샷에 익숙해요. 근데 국내투어는 코스상태가 달라서 반대로 굴리는 샷이 훨씬 많더라고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또 다른 고민은 2010년 무릎 수술한 곳이 조금만 무리하면 원발이 지금도 아파요. 2부 투어는 카트타고 다녀서 덜 아픈데, 1부 투어 진출을 위해서는 라운드 내내 걸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요. 매일 하체 근육강화 훈련을 따로 하고 있어요. 무릎이 약하니까 발목, 골반까지 함께 아파서 티샷 입스도 왔고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남은 시간 열심히 치료받고 운동해서 꼭 멋진 프로의 모습 보여 드릴게요."





**#USGA우승 #USLPGA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 클래식 우승
#KLPGA 점프, 드림투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아빠 따라 골프장에 갔다가 살 빠진다는 아빠의 말에 별생각 없이 골프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으셨대요. 중학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습했어요. 1부 투어 구경 갔는데, 언니들의 스윙 모습이 어린 저에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2002년 중3 겨울방학 때 미 캘리포니아로 첫 전지훈련을 다녀오면서부터 매년 겨울 미국에서 동네 시합에 참가했는데, 항상 제가 1,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흥미를 갖게 됐어요. 주변에서 미국에서 프로로 전향해봐라 권유도 많았어요.”

때마침 이은정은 2005년 미국 주니어대회에 참가, US여자아마추어 퍼블릭링크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여 2006년 3월부터 USLPGA 2부 투어에 진출하면서 프로로 전향했다. 이 대회는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최하는 토너먼트로 2003년 미셸위, 2004년 청야니가 챔피언이다. 2008년부터 USLPGA투어 본선 무대에 올라가, 2009년 7월 LPGA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LPGA 2승을 기록 중인 미국의 모건 프리셀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은정은 이날 우승으로 메이저대회 US오픈 출전권을 얻었다. 이 대회에서 미셸위와 신지애는 각각 공동 3위, 공동 17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은정은 자신의 오랜 고질병이었던 무릎 수술 이후 슬럼프에 빠졌다.

“2010년 왼발 무릎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픈거예요.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티샷 입스도 함께 왔어요. 티를 꽂고 공을 못치는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성적은 점점 안 좋고...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최규진 코치가 ‘은정아 한번 무너졌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넌 잘하고 있는 수준 아니냐. 한국에서 점프투어를 뛰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끝으로 USLPGA투어를 접었어요. 분위기를 전환할 겸 국내에 와서 점프, 드림투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번 우승이 더 값진거죠.”

#미스리 #미국 전지훈련 #박준원, 권성열, 문도엽

“지난 겨울 미국 전지훈련에서 박준원, 권성열, 문도엽, 박성현 선수와 함께 같은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는 왜 저렇게 치지 못할까’ 혼자 생각하면서 스윙 연습한 게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집이라 전 누구보다 동계훈련이 편해요. 우승으로 자신감은 회복했는데 아직도 드라이버 티샷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거의 다 잡았는데... 요즘도 매일 아침 18홀 라운드하고 주로 드라이버 티샷 연습을 해요. 제가 페이드 구질이거든요. 실제 라운드에서 구사해보고 안되면 다시 연습장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요. 자신있는 샷이요? 퍼트요. 제 골프 스타일이 공격형이라기 보단 수비형에 가까워요. 티샷은 안전하게 페어웨이에 놓고, 세컨샷을 핀에 붙이는 공격적인 샷을 해요. 그동안 우승했던게 모두 퍼트가 잘됐어요. 저는 볼에 360도 라인을 그려요. 3미터 이내 거리는 볼이 굴러가면서 스트로크가 잘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별명은 ‘미스 리’예요. 프로암 때 미국교포분이 ‘미스 리’로 부른 걸 친구들이 따라 해서요. ‘이은정’하면 골프팬이라면 모두 아는 프로골퍼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KLPGA 드림투어에 관심이 저 주시고요. 내년에 정규투어에서 꼭 인사드릴게요!”

여름철, 피부 속은 목마르다. 수분 가득한 피부 만들기

건조한 여름 피부를 위한 생활 속 보습법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어느 때보다 피부 속 수분을 빼앗기기 쉽다.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채 라운드를 진행한 선수의 피부는 빨갛게 달아오른다. 달아오른 피부가 화끈거리는 데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서이기도 하지만,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간 이유도 크다.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으로 여름철 수분 가득한 피부를 만들어보자.

글_ 오슬기



STEP1. 촉촉한 피부를 위한 준비운동, 각질 제거

피부에 수분을 더하기 위한 첫 단계는 피부 속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스팀타월을 피부에 올려 각질을 불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크럽제를 가볍게 문질러 불린 각질을 제거한다. 각질 제거는 죽은 세포층을 벗겨내 신선한 세포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각질을 너무 자주 제거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지성피부는 주 1회, 건성피부는 2주에 1회 정도로 조절하여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STEP2. 계란 팩을 이용한 유·수분 밸런스 유지

계란은 피부에 좋은 성분으로 손꼽히는 레시틴, 비타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탁월하다. 계란 흰자는 세정력이 뛰어나 모공 속 피지 및 블랙헤드 제거와 모공 수축에 좋고, 노른자는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거즈를 올린 얼굴 위에 거품을 낸 계란 흰자를 펴 발라 피부 속 수분을 보충한 뒤, 흰자를 씻어내고, 노른자를 발라 피부에 영양을 더하는 방법을 통해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STEP3. 페이스 오일 마사지로 천연 보습막 만들기

페이스 오일은 피부에 공급된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오일막을 씌워 수분증발을 최대한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페이스 오일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오일을 고를 때는 동물성 성분이 아닌, 식물성 성분을 선택하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다. 페이스 오일을 피부에 흡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사지가 좋는데, 오일 마사지는 피부 표면을 적당히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동전 크기만큼 오일을 덜어 얼굴 전체에 바르고, 턱, 볼, 눈썹, 이마 순으로 가볍게 두드려 촉촉한 피부로 가꿔보자.



STEP4. 충분한 물 섭취는 수분 보충의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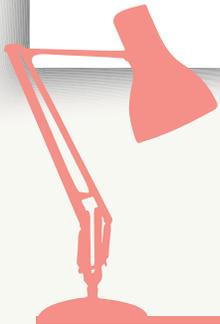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 몸 속 수분이 마르게 되면 피부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충분한 물 섭취로 몸 속 수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종이 컵으로 하루 8~10잔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질 뿐 아니라,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몸속 노폐물도 쉽게 걸러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민프로님, 으쌰으쌰 힘내세요!



정민프로님을 응원하는 마니아들과 함께!



**선수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작성할 기회를 드립니다!**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좋아하는 선수와 얽힌 특별한 추억 등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수 팬레터로 선정된 글 한 편은 매 달 'KLPGA members' 지면에 실릴 예정이며 선정되신 분께는 올해 협회지를 매달 한 부씩 덕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팬레터를 klp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모자에 받은 싸인, 기념품 등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호에는 해당 선수의 인증샷과 소감도 함께 실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민프로(일명 정민마니아 주식회사 회장님)께~♡

어느날 설렘으로 집을 나서 늘 맘으로 응원하던 정민선수를 종일 졸졸 따라다니다가, 나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을 하나 둘씩 만나기 시작해 이제 식구가 돼버린 우리 정민마니아들! 적지 않은 시간들을 함께 으쌰으쌰하며 즐겁게 다니다 보니 혹 정이 들었네요.

늘 동반자들의 플레이에 신경 쓰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정민프로님처럼 저희도 동반자의 팬들과 담소도 나누고 간식도 나눠먹으며 때론 "굿샷!"도 함께 외치기도 한답니다. 물론 홈 이동도 조심히 하고요.

우리 응원의 절정은 작년 11포인트 왕중왕전이었죠. 마니아 마스크트 두 분이 밤새 제작한(정민 사랑)머리띠를 모두 두르고 '내 안에 정민 있다' 플랜카드 들고 했던 열띤 응원은 소중한 추억의 순간이 되었죠.

긴 겨울 우리 동계훈련중인 프로님께 모여서 손 편지도 쓰고, 함께 케이크를 놓고 정민프로님 생일파타도 하고... 아주 재밌게 보냈답니다.

4월 롯데마트 오픈을 손꼽아 기다리다 일명 재미 넘치는 직관 대표 멤버 몇 명(아시조?)이 바로 제주로 go go!

놀랍게도 시즌 초반에 3승을 달성하셔서 저희 더욱 행복한 주식회사마니아들~

청라 기아자동차 셋째 날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 우리 절대 집에 못 간다고 천막에서 간식 먹으며 수다 떨다가 다시 경기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나가서 정민프로(우리끼린 회장님) 맞이해야 한다며 우비 입고 우산 쓰고 머리띠 두르고 난리 난리!(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다시 나타난 우리 때문에 정민프로님이 놀라시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긴 했지만, 우리 열띤 응원을 시작했어요. 우리 프로님은 그날 멋진 샷으로 챔피언조로 입성 하셨고요.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죠.

그 뒤 아일랜드 대회 팬 펜션에서 3박4일 합숙하며 맛있는 것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작은 어프로치 대회도 열고~

우리 마니아 애긴 이 종이에 다 담을 수 없이 풍성하답니다! 혹시 우리의 열정이 거품이 아닐까 염려되시나요? No, No! 진실된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를 발휘할 터, 우리 매니저 '재미나게 살자'님 뜻 좇아 재미있고 신나게 열띤 응원할 겁니다. 우리 정민프로님(회장님)은 가던 길 쪽~ 쪽~ 가시면 가까이에 늘 저희가 있을 겁니다.

올바른 갤러리 문화에 앞장서는 우리 마니아들 꼭 지켜봐 주시고 눈길 자주 자주 주세요~♡ 참고로 정민프로님 아기 돌잔치에 가는 게 저희 마니아들 꿈이랍니다. ^-^♡





PLACE
STAMP
HERE

생각지도 못한 팬레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라CC에서 처음 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열린 시험에서 첫 우승까지 하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뜻이 있는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처럼 오랫동안 선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든든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From 7월호 협회지에 실린 팬레터와 인증샷 찍는 윤채영

<  영어
JOE 류(조 류) 강사

Excuse me! I have some leftovers.
 Can I have some to-go boxes?
 여기요! 남은 음식이 있는데요.
 포장해 갈 수 있는 박스 좀 얻을 수 있을까요?

Sure. How many do you need?
 그럼요. 몇 개 필요하세요?

Two would be good.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Ok. Do you need anything else?
 네. 또 필요하신 게 있나요?

Um... Can I have my check?
 Oh! I also need some condiments too.
 음...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소스도 필요해요.

No problem. I'll be right back.
 I'll pack some single-use forks as well.
 물론이죠. 금방 오겠습니다.
 일회용 포크도 넣어 드릴게요.

That would be great! I appreciate it.
 좋네요. 감사합니다.

<  일본어
김수진 강사

いらっしやいませ。
 こちらでお召し上がりですか。
 いらっしやいませ。
 こちらでおめしあがりですか。
 이렇사야마세. 고퍼라데 오메시아가리 데스까?
 어서 오세요,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いや、持ち帰りで、Aセットお願いします。
 いや、もちかえりで、Aセットをお願いします。
 아야, 모찌가에리데, A세트 오네가이시마스.
 아뇨, A세트 포장해주세요.

はい、Aセットのソースはこの2種類でございますが、どちらになさいますか。
 はい、Aセットのソースはこの2種類でございますが、どちらになさいますか。
 하이, A세트도 소스와 고노 니슈루이데 고히야이마스까, 도찌라니 나사야마스까?
 네, A세트 소스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このソースをお願いします。
 このソースでおねがいします。
 고노 소스데 오네가이시마스
 이 소스로 주세요.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少々お待ちください。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しょうしょうおまちください。
 하이, 카시코마리마스이다.
 소오소 오마찌 구다사이.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중국어
권보민 강사

你怎么不吃啊?吃完了吗?
 Nǐ zěnmē bù chī a? chīwán le ma?
 너 왜 안 먹어? 다 먹은 거야?

嗯, 我差不多了。太饱了, 吃不下。
 Èng, wǒ chàbùduō le. Tàibǎo le, chībùxià
 응, 대충. 너무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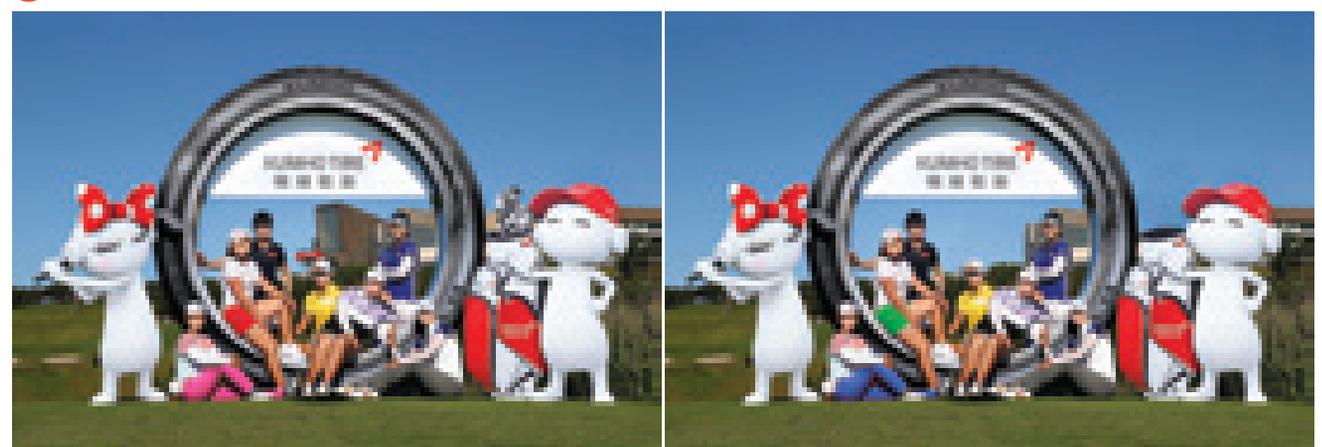
那怎么办?我也吃好了,但是我们剩得太多吧。
 Nà zěnmē bàn? Wǒ yě chīhǎo le, dànshì wǒmen shèng de tàiduō le ba.
 그럼 어찌지? 나도 다 먹었는데, 우리 너무 많이 남겼잖아.

要不我们打包带回去吧。
 在中国, 打包带回家是很自然的。
 Yàobù wǒmen dǎbāo dài huíqu ba.
 Zài Zhōngguó, dǎbāo dài huíqu shì hěn zǎn de.
 아니면 우리 포장해서 가져가자.
 중국에선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

打包?韩国人呢, 不太习惯。可咱们试试吧。
 反正总比浪费好!
 Dǎbāo? Hánguó rén ne, bùtài xíguàn.
 Kě zǎnmen shìshì ba. Fǎnzhèng zǒng bǐ làngfèi hǎo!
 포장? 한국인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번 해보지 뭐. 어쨌든 낭비보다는 낫잖아!
 (叫服务员) 服务员, 请把这些菜帮我打包吧!
 (jiào fúwùyuán) Fúwùyuán, qǐng bǎ zhèxiē cài bāng wǒ dǎbāo ba!
 (종업원 부르며) 여기요, 이 음식들 좀 싸주세요!

服务员:没问题
 Fúwùyuán: Méi wèntí!
 종업원: 알겠습니다!

틀린그림찾기



Quiz & Quiz
사진 속 틀린 부분은 몇 개?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여 다른 부분의 갯수를 맞춰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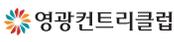
KLPGA TOUR 2015 SPONSORS & PARTNERS

KLPGA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KLPGA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규 투어 타이틀 스폰서

드림 · 점프 · 시니어 투어 타이틀 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격이 다른 한라산 화산암반수
제주삼다수가 건강함을 채워드립니다.

